전북회화

전북회화

2021년 통권 제28호 전북회화회 발행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28. 2021



표지_ 박두리 긍정적 뜨내기 165x130.8cm 탄소섬유에 아크릴릭 2021

전북
회화

전북회화

전북회화 전북회화회전

2021. 11. 30화 - 12. 7화

누벨백미술관

54966 전북 전주시 홍산북로 29-5. 4F TEL. 063-222-7235

이천이십일년 11월

제28호
전북회화회

CHONBUK PAINTING

● '전북회화회는 다양한 미술의 흐름 속에서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대정신의 가치를 존중하며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작가들과 교류 및 전시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지역 예술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 또한 전북회화회는 '전북회화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역량을 높이고 저변확대의 기회를 널리 갖고자 한다. '

전북회화회 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 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회랑-주제전
1991. 1. 4- 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 "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 - 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 7	교동의 표정展-얼회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 "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 (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 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 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강사: 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 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 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청 세미나(주제: 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청강사: 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 청특강 (주제"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 3. 31	백제대학 기획 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 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홍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 (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 김영애, 윤호, 이혜련, 최윤경, 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 30-12. 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케치여행(구 ,산동)
2004. 6	정기모임: 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 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 -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회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 1- 1. 26	뉴 욕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 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 12	전북회화 발행 (제15호)
2008. 2. 5	부안 격포 학술세미나 및 스케치여행
2008. 9. 8-11	부산교류전 (지 묵 현재, 지금 여기)
2008. 11. 20-26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08. 11. 20	전북회화 발행 (제16호)
2009. 11.	정기 전시회(우진문화공간)
2010. 3. 25	정기총회
2010. 7. 5	정기모임-전시및 스케치여행 논의
2010. 8. 13-14	부안 MT, 스케치여행 및 먹빛체험
2010. 10. 20	정기모임-회화지자료제출 및 교정
2010. 11. 8	통권 제17호 발행(신입회원 이봉금)
2010. 11. 16-21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스튜디오)
2011. 8. 16-21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1. 9. 23-24	정기세미나(유안순게스트하우스)
2011. 12. 21	통권 제18호 발행
2012. 8. 28- 9. 2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2. 12. 3	통권 제19호 발행
2013. 6	하계 MT (전남 중도)
2013. 9	신입회원 (송현성)
2013. 12. 10-15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3. 12.	통권 제20호 발행
2014. 2. 13	정기 모임 (신입회원 : 송태정, 이동형, 최윤진)
2014. 8. 13-19	정기 전시회(도립미술관 서울관)
2014. 8. 20-10. 22	최북미술관 대전 (최북미술관)
2014. 8. 23-24	하계 M.T (무주)
2014. 12	통권 제21호 발행
2015. 11	정기 모임
2015. 12. 10-29	정기 전시회(갤러리 누벨백)
2015. 12	통권 제22호 발행
2016. 11. 18-12. 9	정기 전시회(갤러리 누벨백)
2016. 12	통권 제23호 발행
2017. 12. 1- 8	정기전시회(남원 예가람길 갤러리)
2017. 12	통권 제24호 발행
2018. 2. 10	정기총회
2018. 4. 11	정기모임 - 송태정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6. 28	정기모임 - 박지예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10. 24	정기모임 - 박성수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11. 13-22	정기 전시회(누벨백 미술관)
2018. 12	통권 제25호 발행
2019	신입회원 (김준근, 박종갑, 오송규, 윤대라, 임진성 임 효, 임희성, 조병완, 최창봉)
2019. 1. 3- 4	동계 워크샵 (여수)
2019. 5. 7	정기모임
2019. 7. 3	좌담회 준비회의
2019. 7. 16	좌담회(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과 전북회화회의 발전 방안 모색)
2019. 9. 23	회의 (30주년 기념 전시 및 회화회지)
2019. 10. 27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논의)
2019. 11. 17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교정)
2019. 12. 12-21	전북회화회 30주년 기념 전시(누벨백 미술관)
2019. 12	통권 제 26호 발행
2020	신입회원 (김지현, 박방영, 이지희, 이호억, 진희란, 박두리)
2020. 1. 10	정기모임
2020. 7. 30	정기모임 (전북회화회지 및 정기전시 관련 회의)
2020. 11. 7	정기모임 (완산가/아트커뮤니케이션)
2020. 12. 5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논의)
2020. 12. 6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교정)
2020. 12. 12-19	정기전시 (누벨백 미술관)
2020. 12	통권 27호 발행
2021. 8	편집위원회 (회화지 논의)
2021. 10	정미현회원 작업실 방문
2021. 10	회화회 청년 작가 좌담
2021. 11. 24	통권 28호 발행
2021. 11. 30-12. 7	정기전시(누벨백 미술관)

CONTENTS

2021 오늘의 작가

04 김준근
05 박두리
06 박방영
07 박종갑
08 박지예
09 방정엽
10 송태정
11 송화정
12 오송규
13 이명자
14 이승훈
15 이지희
16 이진숙
17 이철량
18 이호억
19 임진성
20 임 효
21 임희성
22 정미현
23 진희란

24 **2021 전시리뷰**

25 김준근展
26 이철량展
27 임효 개인展
28 진희란 개인展
29 수묵동행 6인 기획展
30 문자도 - 현대를 만나다
31 2021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서중화(書中畵)·화중서(畵中書)전」
32 수묵시색 展
33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 따스한 재생
34 필묵지간(筆墨之間) - 서화, 한글을 만나다
36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교과서에서 봤던 작품 눈 앞에서 보니…"
38 '청년작가, 신자연주의 작품 세상 밖으로

40 **특별기고**

41 펜데믹 이후 미술계의 변화와 혁신은 필연
44 예술로 환경과 공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ZERO DIRECTION
46 예술, 온라인으로 대중과 더 가까이
48 작업실 탐방 - 정미현 작가
50 코로나 시대, 젊은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김준근 Kim Jun-keun



기억여행 2021 53x73cm 석분, 토분, 담채 2021

유년 시절 경험되어진 기억의 세계를 자연스러운 선묘와 형상을 통하여 다시 마주한다.이러한 기억의 조각들은 자연 친화를 통해서 얻은 자신의 역사 표현이며, 유년의 기억들이 저장된 추억의 장소이다. 아련한 기억속에 남아있는 엄마의 꽃밭을 오늘도 조용히 들여다 본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미술학박사), 국내외 개인전25회(metalos/파리, 워싱턴주립대학Museum/미국,서일본컨벤션센타/일본), LA한국문화원 초대전 (LA한국문화원 초대전/미국), MBC 미국개국기념 한국미술 대표작가전 (귀넷몰콘서바토리 아트홀/미국), 2009 피스드림아트페스티벌 현대미술제(Fundasion Tres Cultoras/스페인 세비야스) MUSEO DEL MARMO초대전(MUSEO DEL MARMO/이탈리아), 파리앙상블 초대전(Euni Ahn Allard 갤러리/프랑스), 한국기초조형학회 산호세대학 초대전(San Jose State Univ./USA) 문명의 기억과조형(주멕시코한국대산관문화원), 현) 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명예교수 E-mail_ nature@cbnu.ac.kr

박두리 Park Du-ri



탐색전 165x98.1cm 탄소섬유에 아크릴릭 2021
마스크를 써도 냄새는 난다 150x320cm 캔버스에 유화 2021
긍정적 뜨내기 165x130.8cm 탄소섬유에 아크릴릭 2021

박두리(1989-)는 개인의 서사를 화면 위에 구축하며 이를 확장하고 소멸시킨다. <마스크를 써도 냄새는 난다>, <탐색전>, <긍정적 뜨내기>는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소설 '픽션들'에서의 '틀뢴'의 세계관을 빌려온다. '틀뢴'은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보이는 허구의 세계이자, 무한히 증식하며 동시에 비틀린 모습을 보인다. 작가는 이러한 세계관에 AI 오픈소스 인물과 자각 본인의 모습을 결합한 가상, 가공된 인물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생성한다. 제작된 병풍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접히는 형상으로 보이는 각도에 따라 변모하는 각각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020 긍정적 뜨내기 (신세계갤러리, 광주), 2019 Fragile (경성방직 프로젝트, 서울)
2018 경계의 모양-집합A, 집합B (서신갤러리, 아트스페이스 O, 전주, 서울), 2018 미완성 1PAGE (대안공간 눈, 수원)
2017 CONTE (갤러리 밈, 서울) E-mail duri6560@hanmail.net

박방영 Bak Bang-young



본향(本鄕) 141x374cm 한지위 혼합재료 2017

어릴 적 살았던 즐거움의 고향 이야기를 상형그림과 문자로 그린 작품으로, 하늘과 땅, 정자와 꽃피는 산동네, 말과 개와 함께놀던 곳을 담았다. 시인 신석정과 매창(梅窓)의 고장이자 문학이 발달한 곳, 산들에서 뛰어놀던 마냥 즐거운 '락락(樂樂)' 고향의 아름드리 추억을 필획으로 새겼다. 상형문자로 그려낸 그림일기처럼, 일상에 녹여낸 그래피티의 선구자같은 식선으로 그림과 글씨 위에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그린 것이다.

'그리다는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꿈을 그리다. 희망을 그리워하다." -작가노트 중에서

그리워한다는 말 자체가 에너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문자그림은 인간의 욕망을 가시화시킨 민화문자도와 감정의 절실함이 담았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홍익대학교 및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뉴욕의 Art Student League of New York 수학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 박사과정수료했다. 세한대학교 조형문화과 서양화교수역임. 주요 개인전은 박방영의 천연의 획 (아리수갤러리, 서울), Bak Bang Young Exhibition (Badisches Kunstforum, 독일), 원초적 생명과 자유 (CUBUS8갤러리, 파주), 박방영의 '모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 등 20여회 개인전과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목포, 목포문화예술회관), "백제의 재발견' 현대미술리포트 (전북도립미술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화랑미술제등 국내외 단체전에 다수참여. 기타활동으로는 2018OECD WORLD FORUM 퍼포먼스, G20정상회의갈라쇼 퍼포먼스, Essen-Kennedy광장 (독일) 퍼포먼스 등 M.P_ 010-8971-3451
E-mail_ pakbangyoung@hanmail.net (Kor) / bakbangyoung@gmail.com (Eng)

박종갑 Park Jong-gab



器內人 ø16 사발에 수묵, 지두 2020

平中見奇

靜中見動

평온한 가운데 기이함을 추구하고
정적인 가운데 동적인 것을 구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국내외 20회, 2017 제20회 박종갑 초대개인전 (한벽원미술관/서울/한국), 기획전 국내외 400여회 참여, 202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주소리문화의전당/전주/한국),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 (홍천 와동분교/강원도/한국), 2020 필묵지간_한글 담은 서화전 (주홍콩한국문화원/홍콩/중국), 2019 상하이국제종이예술비엔날레 (상하이박물관/상해/중국), 2019 도쿄 국제 교류전 (도쿄미술관/도쿄/일본), 2019 아름다운 한글전 (주홍콩한국문화원 갤러리/홍콩/중국),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비엔날레 본전시관/목포/한국), 송은미술상, 이당미술대상 수상, 현) 경희대학교 미술대학장,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장, 동서미술학회 부회장, 남북문화체육협력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이사, 한국미술협회 이사 E-mail: namu42@khu.ac.kr

박지예 Park Ji-ye



정면을 바라보다-아들 136x69cm 종이에 채색과 먹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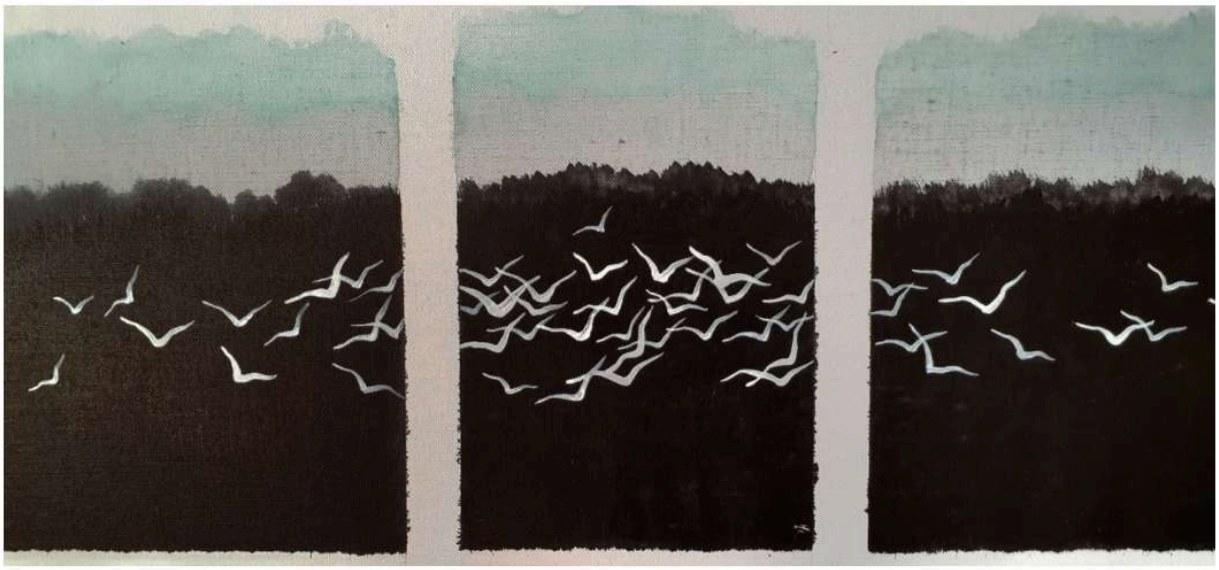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의식표출 #정면을 바라보다#가족사랑

그 동안 '옆집여인'를 주제로 작업을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그 작업의 연상선 일것이다.

옆집여인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의식을 표출하고 인간의 존엄과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번 작업은 가족을 그리게 되었다. 긴 코로나19는 '정면을 바라보다'라는 아이콘으로 내 작업을 이끌었다. 가족은 나의 정면과 같다. 실상 같은 공간이지만 각자의 시간을 찾아가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게 된다. 한정된 시간속에서 인간의 삶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지만 사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규칙속에 살아가고 있다. 인간도 자연이라면 순응하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있다. 가족의 생각과 의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족-'정면을 바라보다'를 통해 사랑의 메시지를 남긴다.

전북대학원(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졸업(박사), 원광대학교 대학원 졸업(미술대학 한국화 전공)
개인전 9회, 그룹전 다수 E-mail_ pjy7822@hanmail.net artcelsi.com/parkjiye

방정엽 Bang Jeong-youb



비상을 꿈꾸다 60x120cm 캔버스천+수묵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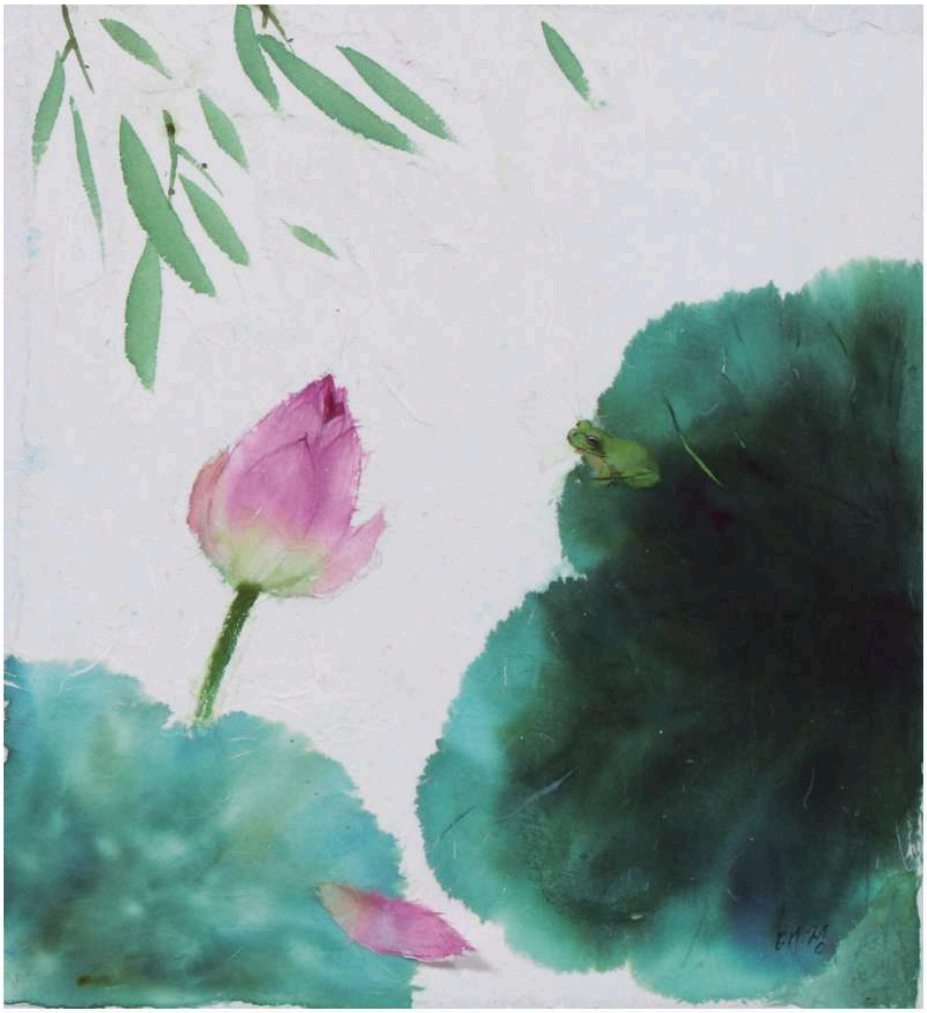
단절의 시대

사람과 사람이
지역과 지역이
국가와 국가가 단절되고
문화가 단절되고
경제가 단절되며
서로를 기피하며 증오하는 시대.
이념과 사상이 단절되고 상실해가는 시대.

고립의 고독을 벗어버리고
비상하는 새 떼들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
훨~ 훨~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전북회화회, 전주고교 재직

송태정 Song Tae-jeong



도란도란 35x35cm 한지에 채색 2021

지난 여름날,

친정엄마 꽃구경 가고 싶다는 날

유난히 연꽃을 좋아하는 엄마

버느나무의 서늘한 그늘 아래에서
엄마와 도란도란 다정히 이야기 나눈다.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전주교육대학원 졸업
개인전 및 아트페어전, 2017-19 초대전3회 (전북지방경찰청, 한전아트센터), 2017 개인전2회 (교동아트센터), 2015 개인전1회 (미국 스캇데일 겔러리, 썬 겔러리)
2012, 10, 07 아트페어전 3회 (한국 소리문화전당), 단체전, 2004-2021 건지전, 전북회화회 외 80여회, 현)건지회원, 한국 미술 협회 회원, 전북 회화회원, 버질아메리카 회원, 전북 전주시 전주서원초등학교 재직, E-mail_ dduknemi@hanmail.net

송화정 Song Hwa-jeong



풀꽃 2021 67x69cm 한지에 수묵 2021

한지에 먹물이 스며드는 순간은 참 매력적이다.
먹물의 농담에 따라, 힘과 속도에 따라
번지며 그려진 물의 자국이
서로의 경계를 허물며 자유롭게 엉겨서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형상을 생성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빛 가득한 상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우연한 수묵의 발현에 유념해보았다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전북회화회 회원,
E-mail: ilikegogh@hanmail.net

오송규 Oh Song-gyu



소요/2021-12 73x72cm 화선지에 수묵 2021

수묵의 검고 깊은 먹색들과 부드러운 담묵의 운용,그리고 여백이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대비와 조화는 화면에 나타나는 수묵의 번짐과 스밈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들로 수많은 별들로 가득 채워진 밤하늘의 공간은 나를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이끈다. 가끔은 새가 되어 세상을 소요하는 꿈을 꾼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32회, 단체전 2019북경비엔날레, 2019전남국제수묵화 비엔날레(목포문화예술회관), 2018뭄바이 비엔날레(뭄바이/인도), 챈나이 챔버 비엔날레(챈나이/인도), 한국화-옛 뜰에 서다(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10 부산국제아트페어(부산문화회관), 수묵에 길을묻다(한국소리문화의 전당)
현) 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충북미술협회 자문위원, 한국기초조형학회 상임이사, 동서미술문화학회 부회장 E-mail_ sunve@hanmail.net

이명자 LEE Myung-ja



삶은 흐르는 강물처럼 69x89cm

어제에서 오늘 그리고 내일로 흘러가는 삶을 그리고 싶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희·로·애·락을 물로 이야기하고 싶다.
좋은 사람과 감사하는 감정으로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일상의 삶은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운다.
우연한 만남 속에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내일과 그리움을 만든다.
도도하고 때론 유유하게 흘러가는 오늘의 삶은 다시 새로움을 경험한다.

공모전 및 단체전 70여회 출품, 아트페어2회
현)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전주솔내고등학교 교사, 전북회화회, 전북판화가협회 회원

이승훈 LEE Seung-hoon



가을계곡 80×100cm 지본담채 2021

가을에

'서리맞은 단풍잎이 봄꽃보다 더 붉다.'라는 말이 오늘에도 맞는 것 같다. 당나라 시인 두목의 산행이라는 시구는 아직도 가을이면 생각나는 시편이다. 단풍이 된 잎사귀가 곱게 물들어서 색색으로 산천을 수 놓는 것이다. 가을에는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를 만나게 된다. 월동을 위하여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남긴다. 이름난 산과 계곡은 이미 인파가 몰려 있고 마을 어귀와 울타리에도 형형색색 나름대로 제 색을 갖추고 있다. 정원의 나무에도 고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으니 가을은 아름다움을 보시하는 행위이다. 나무가 그리 성장할 때는 역경이 없었겠는가. 그리고 혼자 붉어져 아름답기도 했지만, 뒤편에 서 있는 청솔이 있지는 않았을까.

전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4회, 인물 파노라마전 단체전 등 다수, 해외 및 국내 교류전 다수
저서 : 미술 에세이, <감성, 그 시간 속으로>, <시와그림 감성의 바다>
現) 한국미술협회, 전북회화회, 아트회, 전북수묵화회, 현대드로잉회, 대성중학교교장, E-mail : misege@hanmail.net

이지희 LEE Ji-hee



지금, 자라나다 92x118cm 나무판넬에 한지 비단 수묵콜라주 2021

기억의 조각

나의 작품 속 조각들은 시공간을 떠나서 어느 순간의 모습이 어떠한 대상과의 충돌과 교감으로 인해 마치 환영처럼 떠오르는 기억이다. 이 기억은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허물어 버리는 시간이며 더 나아가 작품 속에서 해체된 시간의 조각들이 재구성되어 내면의 잠재된 기억들이 떠오르는 현상의 결과물이다.

나의 조각들이 모여서 새로운 형태의 시각물로 재구성시키는 행위는 자아의 본성을 찾아가는 방식이 투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에게 작품 속 시간은 초월적인 것이므로, 시시각각 떠올려지는 기억들을 작가의 조각으로 맞춰 나가는 행위 속에서 서로 뒤엉킨 이미지를 정리해나가는 방식이 된다. 이렇게 나의 조각 맞추기 이미지는 환영적 이면서도 은유적 현상에 가까운 이미지가 된다.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 박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 석사, 중국 북경 중앙미술학원 중국화 학사
개인전 2020 Beauting Grace 이지희개인전 (광화문 교보생명빌딩15층, 서울), 2020 기억을 붙이다展 (아트커뮤니케이션 완산가, 완주문화재단), 2019 <煥, 希: 환희> 도스 기획 공모전 (갤러리 도스, 서울), 2018 <All the flowing things> 기획 공모전 (에이원갤러리, 서울), 2017 <긴 여름> 너트프라이즈 선정작가전 (갤러리너트, 서울), 2016 녹파:綠波 - LEE JIHEE exhibition (경희대학교 미술관 KUMA, 서울), 2014 1st exhibition <Harmony> (갤러리 우림, 서울), 그외 단체전 70여회
작품소장/레지던시 및 프로젝트 2020 인천미술은행 소장 (인천문화재단), 2020 완주문화재단 레지던시, 2020 완주문화재단 예술농부 프로젝트 E-mail_ jjsok6459@naver.com

이진숙 Lee Jin-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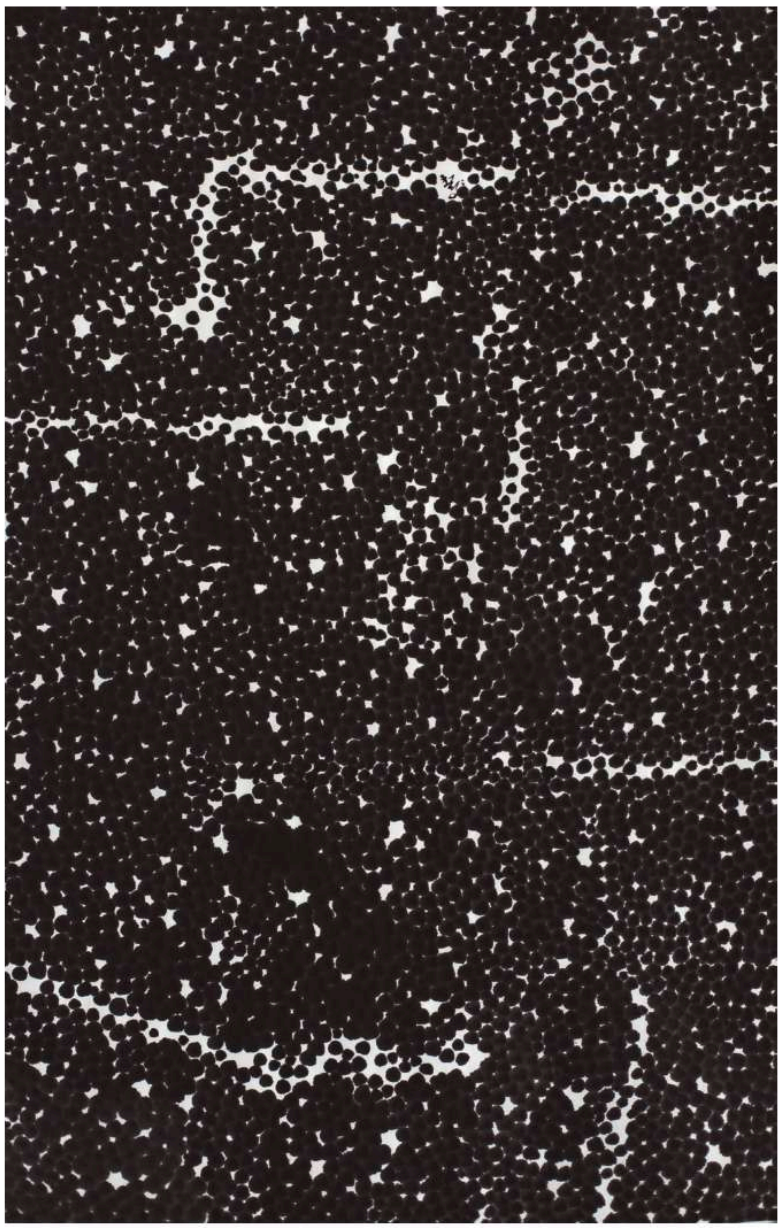


나무야 나무야 75x100cm 요철지에 수묵

밖에 눈 송이가 푸짐하게 내릴 때 내 곁에 오기 시작 했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또 한 그루 거리낌없이 나타나는 푸르른 나무를 보았습니다.
딱 거기까지….
그리곤 꽃이 온 세상을 수 놓는 봄날에는 꽃이 부른다고,
매일 매일 섭씨 36도, 37도의 불같은 더위가 나를 꼼짝 못하게 얽어 매 놓았습니다.
하늘이 점점 올라가고 색이 푸르게 푸르게 번지니 마당에 고추잠자리가 또 나를 보자고 합니다.
이렇게 살랑 살랑 살랑 대는 내 마음은 언제나 꿋꿋하게 한 곳을 향해 있을지….

원광대학교졸업
개인전 7회, 단체전 및 초대전 다수 참여
현) 한국미협, 원묵회, 전북회화회, 봄바람전 회원

이철량 LEE Cheol-ryang



In the garden 36 70x46cm Muk on paper 2021

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닌 그래서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 할 수 없는 애매한 시간의 경계에서 오히려 상생의 기운을 찾는다. 먹빛은 이 순간을 가리킨다.

B.A College of Fine Art. Honglk University, M.A Graduate School of Honglk University, ONORARY PROFESSOR on JEONBUK University 한국화100년 특별전(울산문화예술회관. 2020), 수묵정신 (전북도립미술관 2019), 국제수묵비엔날레(목포문화예술회관 2018) 아트리에 스토리전(한가람미술전2017), 80년대 한국미술(전북도립미술관2015), HERE NAW(포항시립미술관 2015), 한국화의 재발견(성남아트센타 2011), 한국화 1953-2007년(서울시립미술관 2007), 드로잉-새로운 지평(덕수궁미술관 2003), 한국화 100년전(호암갤러리 1986)

이호억 Lee Ho-uk



無盡昇天(무진승천) 140x60cm, 140x60cm, 140x70cm 죽지, 묵필, 석채 2020

이렇게 승천한 용은 폭발하는 구름이 되었다. 이호억 작가는 낫이나 괭이를 든 농민혁명군은 아니지만, 대신 붓을 든 예술혁명가이다. 뛰어난 예술은 흔히 파격이라고 칭송받는데, 그는 조금 더 진실한 파격으로 나아가고 있다. '파격'은 말 그대로 '틀을 부순다'는 뜻이다. 그의 폭발이 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인지를 설명해주는 말이기도 하다.

동양화의 평범한 사군자 그림 같은 그의 <무진승천> 속 소나무, 대나무들은 언뜻 파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마치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만화적 이미지가 연상되는 폭발의 모티프들이 뜬금없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그 '뜬금없음'은 작가의 예술가적 감각으로 이질감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전통의 한 부분인 것처럼 녹아들어가 있다. 모란꽃 같기도 하고, 석류 같기도 한 형태가 온전한 전통적 소재 속에서 급작스레 폭발의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억눌린 무엇인가를 이렇게나마 분출하지 않고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미처버릴지도 모른다는 작가의 경험이자 충고처럼 묵시적으로 혹은 해학적으로 다가온다. 그가 심각한 폭발의 이미지를 이렇게 다소 만화적 이미지처럼 사용한 것도 그것이 단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폭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해소하고 분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버려야하는 감정의 찌거기들에 대한 마지막 헌사처럼 다가온다.

수행하는 화가 이호억 : 그 은일과 폭발의 의미 中

주수완(우석대학교 조교수, 미술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21 <무진승천無盡昇天>, 김천페교, 김천, 2021 <(VIRTUAL)날것들의 합주>, 어린왕자 문학관, 논산, 2019 <아침 꽃을 저녁에 줍다>, 복합문화공간 EMU, 서울, 2018 <붉은 얼굴: Glowing Face>, 갤러리조선, 서울, 2016 <돌을 찢는 남자>,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서울, 2015 <시림양생柿林養生-탁>, 홍제천 갤러리, 서울, 2015 <관음觀淫에서 관음觀音으로>, 안회당, 홍성, 2014 <Red Carpet>, 더케이갤러리, 서울, 2012 <병풍들>, 그림손갤러리, 서울, 단체전 202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 서중화화중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21 <2021 아트부산 특별전 : 회화1>, 벡스코, 부산, 2021 <2021 CRE8TIVE REPORT>, OCI미술관, 서울, 2021 <UNDOING>, 임시공간, 인천 / Seoul13, 서울

임진성 YIM Jin-seong



매화향만촌(梅花香滿村) 69X137cm 화선지에 수묵담채

작품 〈梅花香滿村〉은 매화향으로 가득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은 吉祥의 그림이며,
코로나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작가의 마음이다.
추위를 이겨내고 봄소식을 알리는 매화는 경이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同대학원 석사, 박사 졸업, 개인전: 한국, 중국, 캐나다등 국내외에서 개인전28회, 단체전: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목포예술문화회관),한국근현대산수화전(전북도립미술관,전주),현대한국화'포지션전'(강릉시립미술관,강릉),1980년대와한국미술전(전북도립미술관,전주), 안견회화정신전(세종문화회관,서울), 11인평론가가추천하는<오늘의 진경전>(겸제정선기념관,서울)등250여회, 나이티드문화재단 작가상(유나이티드문화재단), 前) 홍익대,단국대,덕성여대,동덕여대,성신여대,원광대,공주대출강.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E-mail_ yjs5994@hanmail.net

임 효 Rim Hyo



푸른바람 114x194cm 콜크보드+혼합재료+옻칠 2019

초예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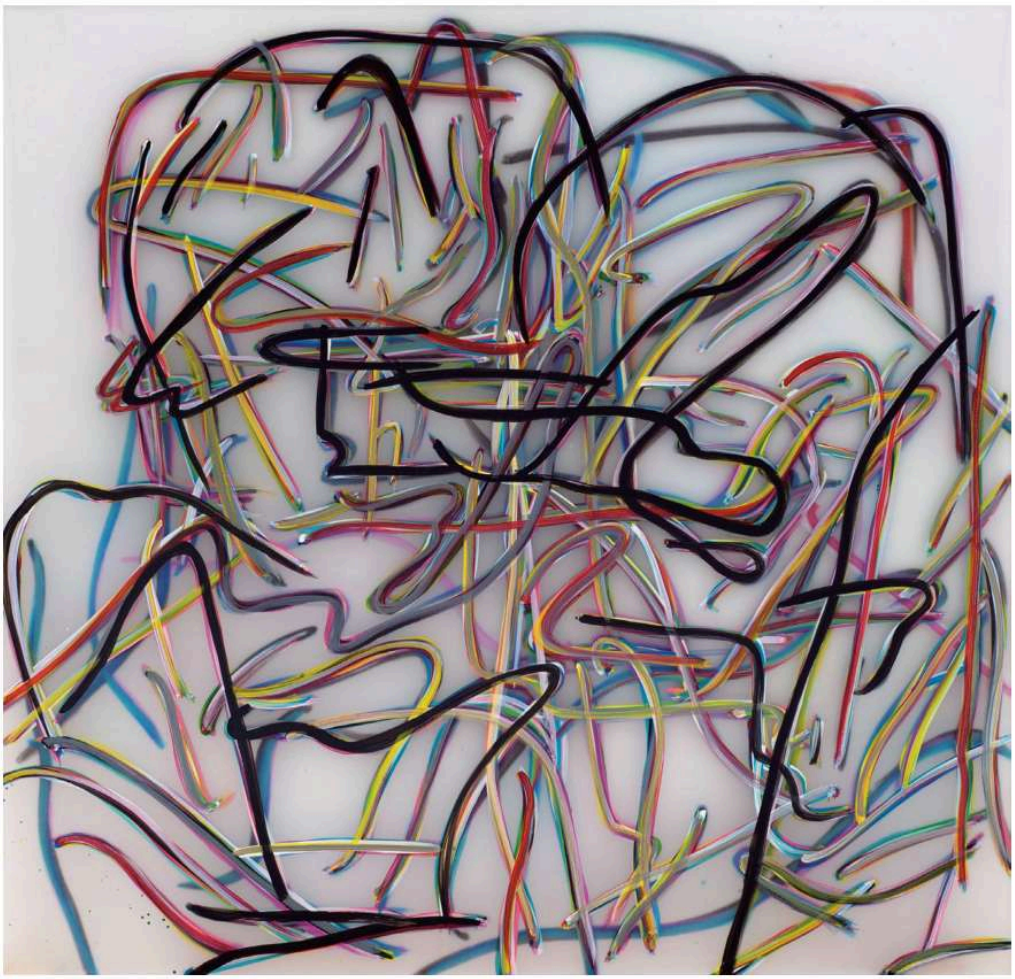
양평의 한 모퉁이에 고독의 섬을 만들고 예술의 파도를 치고 있는 나는 가끔 시간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다. 자연 속의 시간은 더욱 절실하고 시각적으로 느껴진다. 남한강을 끼고 있는 양평은 계절이 지나가는 변화를 더욱 실감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요즘 같이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때는 섬에서의 시간이 현실에서의 시간보다 훨씬 빨리 간다. 이슬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바람이 지나는 모습을 보고, 야생화 계절 옷 바꿔 입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의 달이 뜨고 가슴이 젖어들어 교감의 창이 뜨면 나의 섬은 예술의 텃밭이 된다.

이 세상과 교감하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가 있어야 내가 있고, 하늘이 있어야 땅이 있듯이 세상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섬에서 태어난 생명들인 것이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연결된 것이 세계라는 세계관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하늘, 교감, 연기, 마음의 흐름, 관계 등 이 모든 것이 작품의 화두가 되었다. 그림을 그린 지 50년이 넘었지만 예술가의 길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고독하다. 매번 하안거, 동안거에 들어가는 수행자처럼 그림을 그린다. 인생에서 찾아가는 길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길은 어디인지 모르고 헤매는 것이 일상이다. 사방으로 갈라진 길 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그러한 수행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한다. 고독하지 않으면 예술가가 아니다. 종교가 대중에게 바른 삶을 보여주듯 예술도 대중과 어울리기보다는 대중을 깨닫게 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 나는 이름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후배가 되었건 다른 누군가가 되었건 나의 예술을 통해 새로운 심미안을 얻고 예술세계에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그림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생각을 옮겨 놨구나 하고 쳐다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내 그림을 통해 누군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화가 인생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예술은 예술로 끝나지 않는다. 예술이라는 꽃의 향기는 세상으로 퍼져 어떤 이에게는 삶의 의미가, 어떤 이에게는 아름다움의 희망이 될 것이다. 세상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인연이 쌓이고 쌓여서 바뀌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남기는 예술과 인연은 만 가지 꽃이 되어 어디선가 다시 피어날 것이다.

개인전 26회 서울, 부산, 전주, 미국 L.A , 독일 메켈렌부르크, 한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전 (국립 현대미술관개관기획 ,과천)서울 미술제 (서울 시립미술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개관기념(한가람 미술관), 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국제전 바젤,상하이,이스탄불,파리,피아,쥬리히,한국아트페어 등 참가, 7회 동아미술상, 13회 선미술상
주요 콜렉션 UN ESCAP, 국립현대미술관, 국립 전주박물관, 서울 시립미술관, 한양대학교박물관, 홍익대학교박물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한국은행, 한솔문화재단, 금호생명, SK연수원 고은 미술관, 기당 미술관, 서울 삼성 의료원, E-mail_ rh6504@naver.com www.rimhyo.co.kr

임희성 Yim Hee-seong



Family Landscape 52x52cm 아크릴보드, 샌딩, 아크릴 물감 2019

Family Landscape

산수화에서 산(山)은 공간적인 측면을, 수(水)는 시간적인 측면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부분에 매력을 느껴 나의 생각과 일상을 담아내는데 좋은 형식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의 가족사진dl 마치 하나의 산수화처럼 다가왔다. 거창하지도, 특이하지도 않은 나의 가족사진이 하나의 산수(山水)처럼 보이기도 했으며 또한, 많은 시간과 공간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음을 느꼈다.

이런 가족의 모습을 물 흐르듯 선을 그으며, 여러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계획이든, 우연이든 겹겹이 그려지는 나의 표현에서 하나의 새로운 풍경이 나타난다.

2008 중앙대학교 한국화학과 졸업 / 2012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화학과 졸업
개인전 7회, 단체전 40여회, 수상 및 지원 2020 청년작가 전시 지원금 선정, 전라북도 문화 관광 재단/2019 이 작가를 주목하라 작가선정, 교동미술관/ 2018 신진작가 전시지원금 선정, 전라북도 문화 관광 재단/2016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전북도립미술관 / 2013 송파 예술창작소, 입주작가, 송파구청 / 2012 가송예술상, 동화약품, 작품소장 전북도립미술관, 교동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반도상사(주), 암웨이, 인영재단, 개인소장50여점

정미현 Jeong Mee-hyun



묵상 130.3x91.0cm 천에수묵 2021

나에게 墨畫는 고요함 속에 일어나는 조용한 외침이고 마음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일어나는 깊은 호흡이다.

이번 작업은 7월의 전시를 준비하면서 모티브로 삼았던 고목의 시선을 조형적 재구성과 마음의 향연에 많은 비중을 두고 그려나가고 있다. 고목이 주는 메시지에 의식과 무의식 이완과 긴장 고요와 역동 등의 양면적 이성과 감흥이 주는 대립과 화합을 통해 묵의 심연을 찾아가고자 하였다. 작품의 과정에서 음악적 리듬과 심동적 감흥에 마음을 실어 내면의 의식을 내려놓고 무의식 속에 고목이 분분이 흩어져 오랜 질곡의 시간에서 벗어나 춤을 추듯 따라가며 이끌리는 대로 붓이 가는 대로 유희적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7회 개인전 및 다수의 단체전 및 초대전 참여 E-mail_ hyun3560@hanmail.net

진희란 Jin Hee-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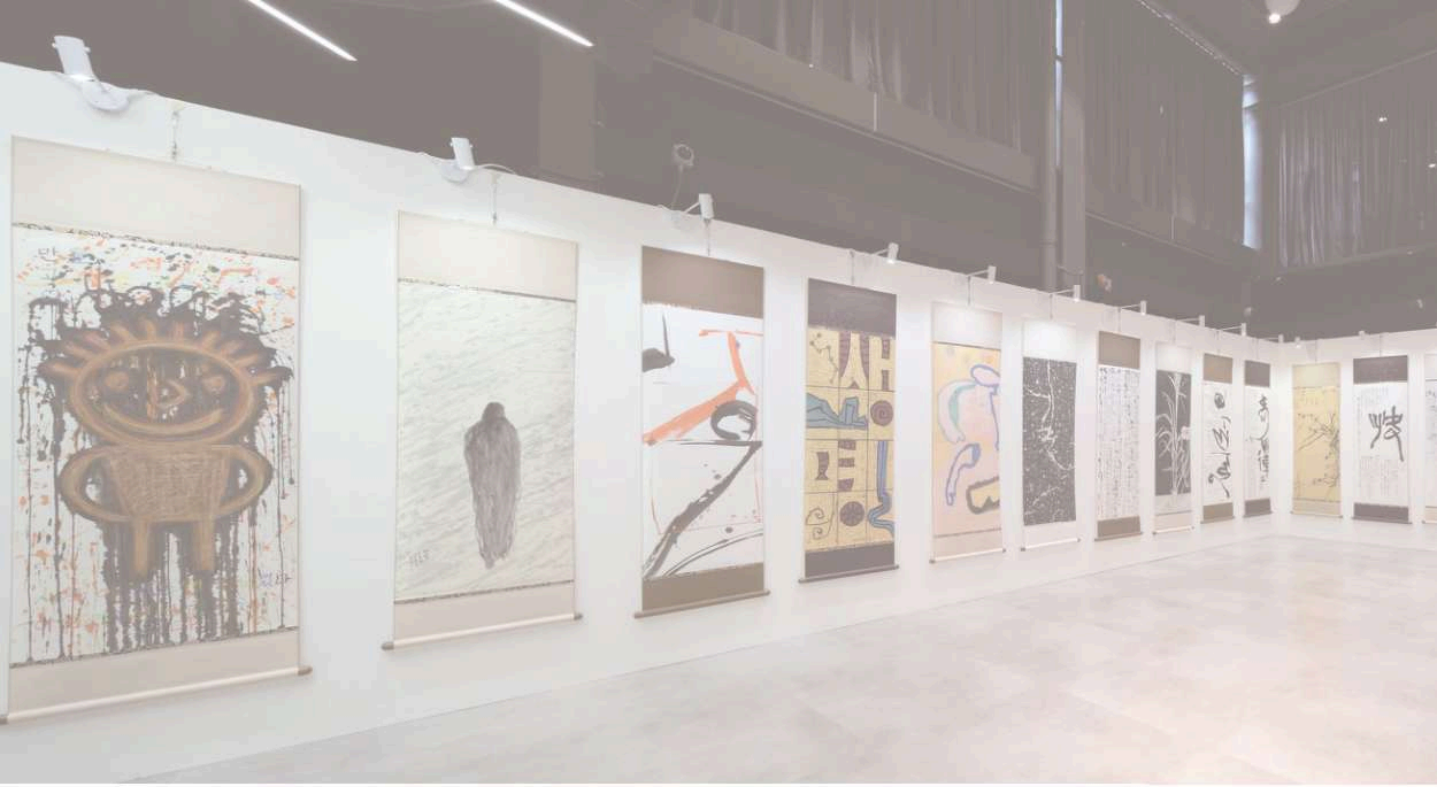
산영루 30×56cm 순지에수묵담채 2021

작업은 산행하며 겪은 이야기를 주제로, 산천에서 사생하며 경험한 이야기를 한 장면으로 압축시켜 작품 곳곳에 담는다. 『임천고치(林泉高致)』 속 '산수를 늘 그리워하지만, 귀와 눈으로는 접할 수 없을 때 산수화를 그렸다.'는 내용처럼, 산수화에는 산행 중 겪은 경험과 직접 본 이야기를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의 이야기가 한 장면으로 합쳐지면서 산수화는 자연스럽게 관념의 구도를 갖게 되고 단순한 풍경이 아니게 된다. 나는 산을 경험하며 내가 직접 보았던 것, 책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전해준 그 지리에 관한 전설, 현장을 보고 떠오르는 추상, 산에 어우러진 산장과 법당 등의 사람들이 오간 흔적 등을 그려 산을 이야기 하면서 동시에 나의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한 데 담을 수 있는 ' 조감도(鳥瞰圖) ' 기법으로 산수를 재구성하여 공통된 경험의 이야기(실경)와 나의 이야기(관념의 공간)로 만들어진 담경산수(談景山水:이야기가 있는 풍경)를 그린다.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과 학사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과 석사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과 박사 재학
개인전 2021 <山路> 스타파이브 갤러리, 인천, <山路> 갤러리 자인제노. 서울, 2020 <두류담경>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산산수수 山産水受> 아트레온 갤러리. 서울, 2018 <강원산수> 갤러리 청풍. 강릉, <설악산산수화> 갤러리 한옥. 서울, 2016 <談산수화> 갤러리 자인제노. 서울, <북한산산수화> 갤러리 한옥. 서울 단체전 2021.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전승축제>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서울, <제12회 대한민국 안견미술모색전> 서산시문화회관 전시실. 서산, <네가 선택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어 : 신구운몽 新九雲夢>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옵티무스-우수작가 선정전> 갤러리내일. 서울, <안평안경예술정신전> 한벽원미술관. 서울 외 다수



2021 전시 리뷰

25 김준근展

26 이철량展

27 임효 개인展

28 진희란 개인展

29 수묵동행 6인 기획展

30 문자도- 현대를 만나다

31 2021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서중화(書中畵)·화중서(畵中書)전」

32 수묵시색 展

33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
따스한 재생

34 필묵지간(筆墨之間) - 서화, 한글을 만나다

36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교과서에서 봤던 작품 눈 앞에서 보니…"

38 '청년작가, 신자연주의 작품 세상 밖으로



기억여행 50x117cm 마천, 토분, 석분, 담채 2021

김준근 展

기억 여행 - 유년 일기

Memory journey - Childhood Diary

일정: 2021. 6. 23 - 2021. 6. 29

장소: 인사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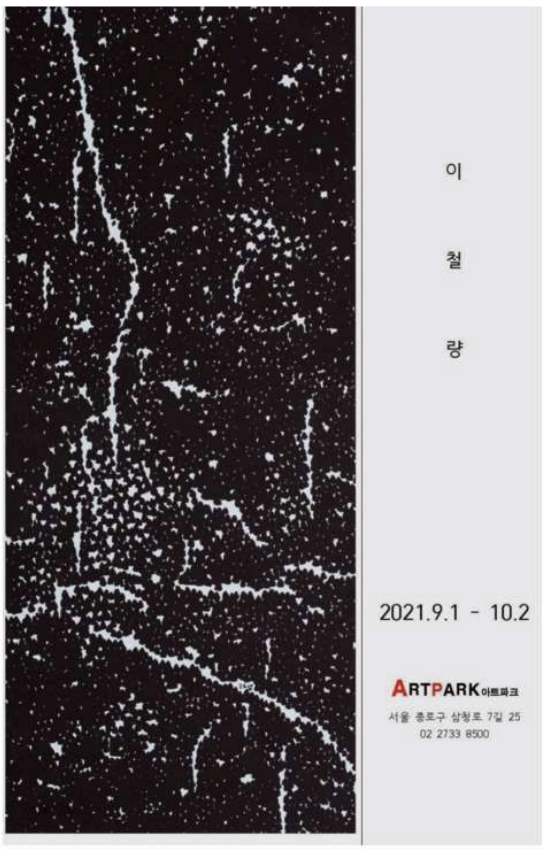
기억여행 50x65.1cm 마천, 토분, 석분, 담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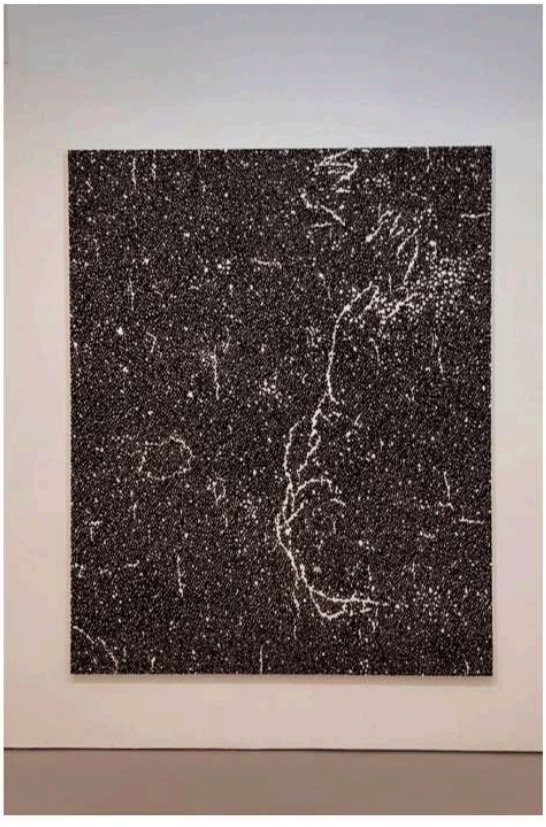
기억여행 53x72.5cm 마천, 토분, 석분, 담채 2020



기억여행 53x72.8cm 마천, 토분, 석분, 담채 2021







이철량展

일정: 2021. 9. 1 - 10. 2

장소: 아트파크

이철량의 신작 'In the Garden' 시리즈는 작은 점에서 시작하여 군집을 이룬다. 화폭 속 흑백과 백색의 대비는 자연의 시간을 투영한다. 작가에게 시간이라는 비물질적 대상은 먹을 통해 표현되고 이는 '먹빛'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된다. 먹빛은 계절의 순환처럼 죽음이 내려앉은 곳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순간을 의미한다. 기존 작품에서 작가는 보이는 것을 재현해냈다면, 신작에서는 작품의 주제가 지닌 시간까지 포함한다. 나아가 먹을 다루는 일은 지나간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에서 찾아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 말한다.

이렇듯 이철량 작가는 자연이 변화해가는 시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먹에 대한 본질적인 재료 연구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번 <In the Garden> 전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 끝없이 변화하며 나아가는 자연세계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을 소개한다.

-아트파크 홈페이지 전시 소개문-



본심 164x114cm 콜크보드+세라믹+옻칠 2018



0505古語 62x45cm 콜크보드+세라믹+옻칠 2019



봄내림 122.5x65cm
수제한지, 수묵, 옻칠 2018



임효 개인展

일정: 상설 전시

장소: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

퀘렌시아

남한강의 풍경이 한 눈에 펼쳐지는 고즈넉한 언덕 위를 호령하듯 블룸비스타 호텔이 자리잡고 있다. 양평 근처의 보기 좋은 풍광을 구경하는 것은 물론 힐링도 가능한, 서울 근교의 보기 드문 휴식공간이다. 여기에 지난 2017년 2019년 두 번의 초대전을 갖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호텔 지하 1층에 오면 언제나 작품을 감상을 할 수 있는 상설 전시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마디로 나는, 퀘렌시아의 방을 열게 되었다. 퀘렌시아! 가장 힘들고 어려울때 기대고 숨는 곳이다. 스페인 투우에서는 소가 싸울 힘이 없고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때 소만의 안전한 장소를 준비해둔다고 한다. 그 공간이 퀘렌시아 이다. 소는 그 곳에서 힘을 비축하고, 그 다음 전투를 준비한다. 그 곳에 있는 동안은 투우사조차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기에 명상의 세계에서 퀘렌시아는 인간 내면에 있는 성소로 비유 된다. 아무런 위험이나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세계, 眞空妙有(진공묘유)의 세계이다. 나의 퀘렌시아에서는 커피 한잔을 들고 응접실 같은 전시장에서 담소하며 편안한 시간을 느낄 수 있다. 지친 현실의 팍팍함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은 안식이며, 구원이며, 희망의 메시지도 된다. 모두가 이런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이 공간은 내가 모두의 마음 안식에 하나의 벽돌을 쌓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나의 퀘렌시아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곳에서 그림을 감상하면서 평안과 힐링의 순간을 느껴보자. 나의 퀘렌시아가 모두의 퀘렌시아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환희로 다가올 것이다.이곳 블룸비스타 퀘렌시아가 그림 속 진의를 찾아내며 모두가 진공묘유의 깊은세계를 음미하고 자신만의 성소를 찾는 안내판으로써 존재하기를 바란다. 각자 자신이 사는 생활공간에 마음으로 멋진 퀘렌시아의 방을 만든다면 피안의 강을 건너갈 멋진 배를 얻을 것이다.



진희란 개인展

산로 山路

일정: 2021. 10. 1 - 11.30

장소: 스타파이브

매번 산천에 들리면
아래 풍경과 끝의 풍경이 궁금하다.
그래놓고 한곳만 그리긴 아쉬워
구름위로 오른다.
집중이 짧아서
정情에 들지 못한 것 마저 그리면
모르는 산이 되어버린다.
감은 눈이 가는대로 난 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어지고
큰 산이 된다.

'산로山路'는 여정에서 본 길이다.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 눈을 감고 떠올린다.
잔잔하게 남은 여정의 기억은 길을 따라
심산心山을 만들고 아련함이 가득 찬다.
그 아련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뿌연
안개 속 빛처럼 희미함 속에 더욱
선명해진다.
산로를 따라 국내의 산천을 산행하며
느낀 자연의 변천과 순리,
경외감과 광활함 그리고 그 속에
융화되어간 사람의 흔적과 세월을,
산수(심산)의 모습으로 빚어내어
다시금 이야기한다.



오풍부감 90x103cm 순지에 수묵담채 2021

수묵동행 6인 기획展

박경민, 박서령, 손종민
엄재홍, 이지희, 정미현

일정: 2021. 7. 28 - 8. 10

장소: 아트비트갤러리

현재 수묵화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재해석하고 기획전에 참여한 작가들이 현시대를 살아오면서 느끼는 수묵에 대한 개념과 이해도를 알리는데 의미를 두고 기획한 전시다. 이번 기획전에 참여하는 6인의 작가 모두 수묵이란 개념 안에서 재료나 의미를 제한하지 않고 각자의 철학과 개성을 이야기하여 작업한 결과물이 전시된다. 올해 <수묵동행 기획전> 참여작가 중 정미현작가와 이지희작가는 전북회화회 회원으로서 수묵에 대한 의의를 진정성을 담고 각자의 작품에 풀어내었다.

'수묵동행 6인 기획전'은 전시 기간 중 대담형식의 Artist Talk도 함께 진행되었다. 참여작가 6인과 현재 활발히 활동하시는 평론가들이 현재 수묵화에 대한 고찰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모색을 작품으로 함께 토론하였다. Artist Talk 대담토론을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수묵화에 대한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정미현 묵상 101x81cm
천에 수묵 2021



박서령 소망(素望)1
117×80cm
한지에 수묵 2021

默 · 思惟 정미현

새소리, 풀벌레 소리가 새벽의 깨어남을 알린다.

밤에 들리던 바깥의 소리는 어둠의 무거움 탓인지 만물의 쉼에 대한 배려 때문인지 고요하고 조심스러우며 깊었다.

밝아오는 여명의 빛은 어둠의 공기를 가르며 슬그머니 떠오르는 산 그림자와 툭 던져진 듯 무심히 서 있던 나무들을 나에게로 오게 한다. 눈앞의 모든 사물이 처음 만난 듯이 새롭다. 새벽의 깨어남을 오랜만에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더 많이 행복하다.

오랫동안 천이라는 질박한 바탕에 수묵 그림을 그리고 있다. 묵으로만 그림을 그려내는 작업은 절제된 긴 호흡과도 같다. 오늘도 거친 숨을 몰아쉬고 탐욕과 번뇌로 이글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눈을 감는다.

고요한 공간에 붓을 들고 들숨과 날숨을 헤아리며 날 선 붓질이 일어나고 다시 고요해지니 마음이 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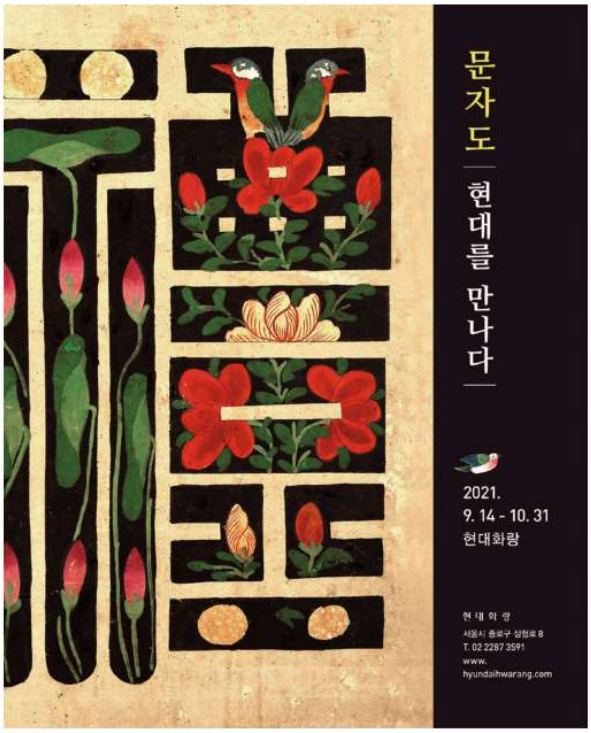
이번 작업은 오랜 시간의 질곡을 견디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존재의 의미를 발현하는 고목을 모티브로 하였다. 默 · 思惟(묵· 사유) 라는 주제로 默想(묵상)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또 다른 시선으로 고목을 바라본다. 긴 세월의 파노라마를 삼키고서 내면의 외침으로 새겨진 굵고 거친 숨결과 세월을 묵묵히 이겨내며 묵언 수행하는 수도승 그림자를 느껴본다. 눈을 감고 너무 많이 보았음에 탐욕의 마음을 거두고 곧은 호흡으로 붓질을 하며 고목의 지혜를 마음에 새긴다.



이지희 혼돈의 동산
172x345(8폭병풍) 면천에 한지 수묵 콜라주 2021

기억의 조각보 이지희

나의 작품의 조각들은 시공간을 떠나서 어느 순간의 모습이 어떠한 대상과의 충돌과 교감으로 인해 마치 환영처럼 떠오르는 기억이다. 이 기억은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허물어 버리는 시간이며 더 나아가 작품 속에서 해체된 시간은 조각들이 재구성되어 내면의 잠재된 기억들이 떠오르는 현상이다. 이렇게 조각들이 모여서 새로운 형태의 시각물로 재구성시키는 행위가 자아의 본성을 찾아가는 방식이 투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작가에게 작품 속 시간은 초월적인 것이다. 실제로 시시각각 떠올려지는 기억들을 작가의 조각보를 맞춰 나가는 행위 속에서 서로 뒤엉킨 이미지를 정리해 나가는 방식이 된다. 조각 맞추기 이미지는 환영적이면서도 은유적 현상에 가까운 이미지가 된다.



문자도

현대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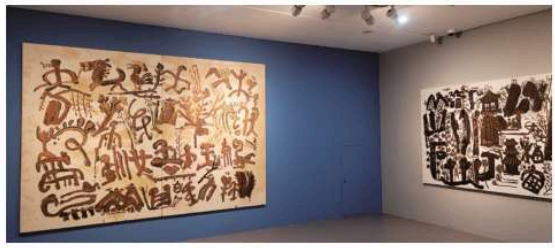
일정: 2021. 9. 14 - 10. 31

장소: 현대화랑



박방영 어머니 그 먼나라를 아십니까 (신석시)
142x73 한지위에 혼합재료 2021









박방영 인연들 205x300cm 장지위혼합재료 2017



2021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서중화(書中畵)·화중서(畵中書)전」

전북회화회 회원 참여작가
이철량, 박방영, 박종갑
윤대라, 이호억, 이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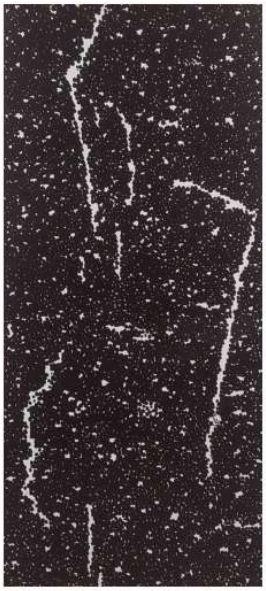
일정: 2021. 11. 6 - 12. 5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박종갑 화석이 된 문명 135x69cm



박방영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143x75cm



이철량 정원 136x60cm



이호억 無盡昇天-잉어 138x70cm



이지희 돌탑 130x60cm



윤대라 나의 레닌 140x60cm



수묵시색 展

일정: 2021. 9.15 ~ 10.5

장소: 전북도립미술관 JMA스페이스 서울

"수묵(水墨)과 시색(時色)" 이라는 주제로 전북 수묵 작가 8인의(김승호, 박성수, 박종갑, 송만규, 이홍규, 정미현, 장지성, 탁소연)작품을 통해 현대 수묵의 기치와 방향성을 알아보고 이 시대의 수묵의 추세를 조명해보는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는 현대 수묵화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동양 고유의 정신성 그리고 현대적 기법연구를 통해 무한한 화화적 가능성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작품의 핵심적 세계와 형식을 탐색하고 수묵이 갖는 정신성을 재조명하여 전북의 고유한 정체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시 글 중에서 발췌-



탁소연 불안.. 보이지않는



정미현 묵상



박성수 나의 부분 21



장지성 위스콘신 오클레어 치페아강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
따스한 재생

일정: 2021. 9. 30 - 11. 7
장소: 와동분교, 홍천 탄약정비공장,
홍천미술관, 홍천중앙시장

국내 주요 시각예술축제로 자리 잡은 2021강원국제트리엔날가 38개국 101팀의 작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강원도 홍천에서 열렸다. 이번 강원국제트리엔날레의 주제는 '따스한 재생'으로, 각종 재난과 환경 오염, 코로나19 등 인류 위기상황 속의 지구적 환경에 재생의 기대와 회복의 전망을 담고 있다.

박종갑 작가는 한 교실 벽면 전체를 숲으로 만들어놨다. 가로 976㎝에 달하는 수묵화 '생명의 숲_ 경계에 서다'로 환경 문제를 일깨운다. 수묵화 맞은편에 걸린 제주동자상 미간에서는 빛이 나온다. 고대 유적과 현재 숲의 교감을 통해 후대에 물려줄 자연을 모색하는 작품이다. 이 곳에서 만난 작가는 "홍천 수타사 샘물 80ℓ를 길어와 먹을 갈아서 수묵화를 그렸다"며 "생명의 숲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전지현 기자 (기사발췌)



박종갑 생명의 숲, 경계에 서다 2m30cm × 9m76cm 음원: 김민경(현대음악 작곡가)

필묵지간(筆墨之間) - 서화, 한글을 만나다



일정: 2021. 7. 7. - 8. 14
장소: 駐홍콩한국문화원

일정: 2021. 12. 21 - 12. 26
장소: 복합문화지구 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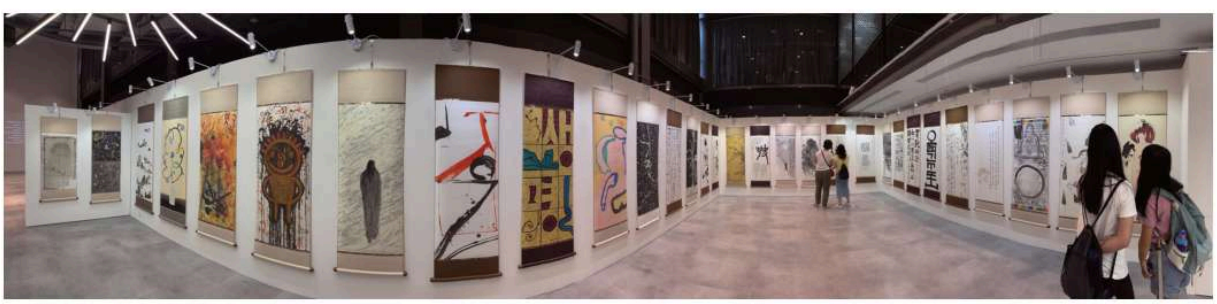
주최주관 : 주홍콩한국문화원
경희대학교현대미술연구소
후 원 : 전라북도/ 복합문화지구누에
완주문화재/ 네오룩

참여작가

강경구 구본아 권기수 김문식 김병기 김선두 나형민 박정숙 박종갑 신하순
안호균 양상철 여성구 여태명 유근택 윤기언 윤대라 윤점용 윤종득 이 용
이재복 이지희 이철량 전진원 정고암 조병완 조 환 최은철 최지윤 황석봉

홍콩문화원과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의 만남으로 기획된 본 전시는 2019년'아름다운 한글展'으로 시작하여 2020년 '필묵지간-한글 담은 서화展', 2021년 '필묵지간-서화, 한글을 만나다展'을 열며 현지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문화원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駐)홍콩한국문화원의 대표적 컨텐츠로 자리 잡았다. 또한 2020년부터 완주문화재단과 함께 완주군 내 '복합문화지구누에' 에서도 전시를 개최해 이 시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다채로운 그림과 글씨를 홍콩과 한국에서 펼치게 된다.

전시를 기획한 박종갑(화가, 경희대교수)은 서(書)와 화(畫)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전시를 통해 한국의 전통서화의 방향을 모색하며, 세계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촉매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와 연계하여 2021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한국화분야 작가들을 모시고 '서중화 화중서'展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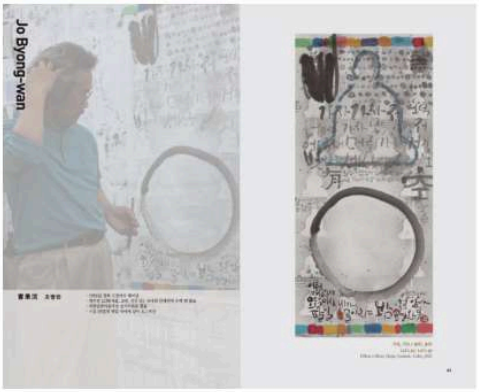


駐)홍콩한국문화원 전시광경

전북회화회 참여작가

이철량
조병완
박종갑
윤대라
이지희













駐)홍콩한국문화원 전시광경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교과서에서 봤던 작품 눈 앞에서 보니…”

Kbsnews 이금나기자 goldlee@kbs.co.kr 2021.08.16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세기의 컬렉션’이 최근 몇달 동안 국내 미술계에서 화제입니다. 지난 10일 오전에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열리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찾았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 중인 미술관은 10시가 되자 30명 안팎의 관람객들이 줄을 지어 입장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34명의 주요작품 58점을 선보입니다.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제작된 작품들을 주축으로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과 변화>인데요. 학예사님과 함께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자 백남순의 작품 ‘낙원’이 반겼습니다.



백남순(1904-1994), 낙원, 1936년경, 캔버스에 유채, 8폭 병풍, 173x372cm

20세기 초반에 서양문물이 들어오고 전통의 동양화와 서양의 기법인 유화가 혼재된 작품들이 탄생했던 시기. 서양화를 공부한 1세대 한국 화가가 어떻게 소재나 기법 면에서 동서양의 전통을 융합하고 변형할 것 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이 작품은 해방 이전 제작된 백남순 작품 중 유일한 현존 작입니다. 김은주 학예사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을 기획할 때 입구에 걸릴 첫 작품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이 많았고, 또 그만큼 공들여 선정한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백남순의 ‘낙원’의 건너편에 자리 잡은 이상범의 ‘무릉도원’. 두 작품을 서로 마주보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낙원’에서는 매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면, ‘무릉도원’에서는 전통적인 한국화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일점투시도의 형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이상범(1897-1972), 무릉도원, 1922, 비단에 채색; 10폭 병풍, 이미지 159x39x(2), 159x41x(8)cm, 병풍: 202x413cm)

다점투시가 들어간 동양화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림의 왼편부터 오른편까지 원근이 쭉 보이는 일점투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화에서 근대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개성의 발현>입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격동의 시기에도 작가들은 작업을 멈추지 않고 전시를 열고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며 예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김환기(1913-1974), 여인들과 항아리, 1950년대, 캔버스에 유채, 281.5x567cm.
ⓒ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전시 한쪽 벽면을 크게 자리하고 있는 김환기의 작품은 벽화용 주문 제작 작품입니다. 1950년대에 조선 방직을 인수해 국내 최대 방직재벌 기업가가 된 삼호그룹의 정재호 회장이 퇴계로에 자택을 신축하면서 대형 벽화용 그림을 주문한 것인데요. 파스텔톤의 색 면 배경 위에 양식화된 인물과 사물, 동물 등이 정면과 정 측면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김환기 작가가 즐겨 사용했던 모티브인 달항아리, 작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여인의 얼굴, 자화상을 표현한 사슴이 등장합니다. 60년대 말 삼호그룹이 쇠락하면서 이 작품은 미술시장에 나왔고 이후 이건희 컬렉션으로 소장된 듯 합니다. 우리에게 교과서 그림으로 매우 친숙한 이중섭의 황소도 인기였습니다.



이중섭(1916-1956), 황소, 1950년대, 종이에 유채, 26.5x36.7cm.

'황소'는 이중섭이 가장 좋아했던 작품 소재 중 하나입니다.작품을 감상중이던 관람객 박소연씨는 "학생 때 교과서에서만 봤던 그림을 성인이 되어서 실제로 보니까 감명 깊어요. 확실히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물로 보는 거랑 와 닿는 색채와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마지막은 정착과 모색입니다. 전후 복구 시기에 작가들은 국내외에서 차츰 정착하며 꾸준히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모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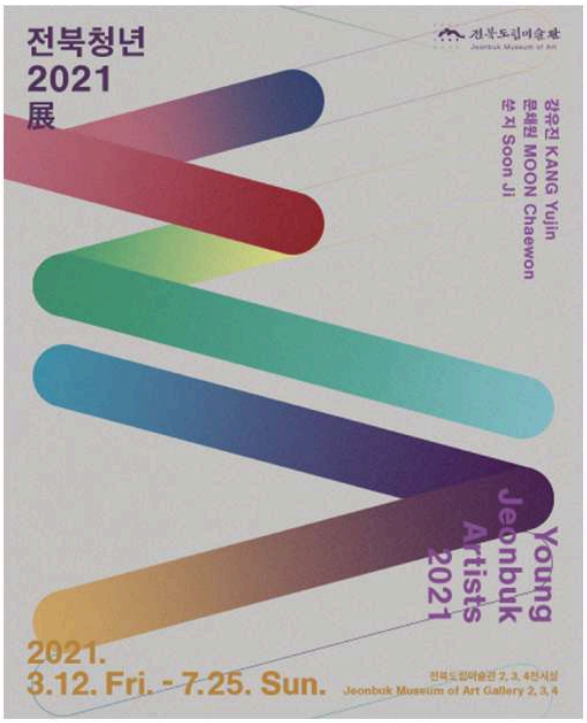


박생광(1904-1985), 무녀, 1980, 종이에 채색, 136x140cm.

박생광의 '무녀'는 조형 세계를 구축하며 한국미술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는데요. 한국적 채색화 양식을 정립해간 1980년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색동옷과 단청에서 영감받은 특유의 민속적이고, 원색적인 색감이 다채롭게 어우러지면서 평면성이 강조됐던 기존의 작품과는 달리 대상을 묘사하는 정도와 크기를 다르게 하면서 화면의 깊이를 더해줬습니다. 현대와 근대를 관통하는 시대적 역사가 담긴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사전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회차당 30명씩 1시간 관람이 가능하며, 매일(월요일 휴관) 총 8회차(수·토요일은 총 11회차)를 운영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은 회차당 20명씩 30분 간격으로, 매일 총 15회차가 진행됩니다

'청년작가, 신자연주의 작품 세상 밖으로

새전북신문 이종근기자 jk7409@hanmail.net 2021년 03월 28일





강유진작 개발구역(사막)

전북도립미술관이 7월 25일까지 2~4전시실과 5전시실에서 '전북청년 2021'과 '신자연주의'전을 갖는다. '전북청년 2021'전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전북 청년작가들의 초대전이다. 2015년부터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 미술가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기 위해 시작한 이 전시는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였다. 작년 10월에 실시한 공모에 35명이 지원한 가운데 3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모두 회화를 기반으로 작품활동을 이어오면서도 매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다양한 실험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시대적 상황에 대한 자기 인식과 작가적 질문들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2전시실의 강유진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연상시키는 풍경과 도시 속 식물의 모습을 한 화면으로 제시하곤 하는데 일견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과잉개발의 흔적으로 이뤄진 디스토피아와 같다. 3전시실의 문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과 불안한 미래를 벗어나기 위한 작가적 고뇌를 반어법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상상력과 위트로 다이내믹하게 시각화한 회화작품을 선보인다. 4전시실의 순지는 보이는 것과 보는



강용면 만인보-현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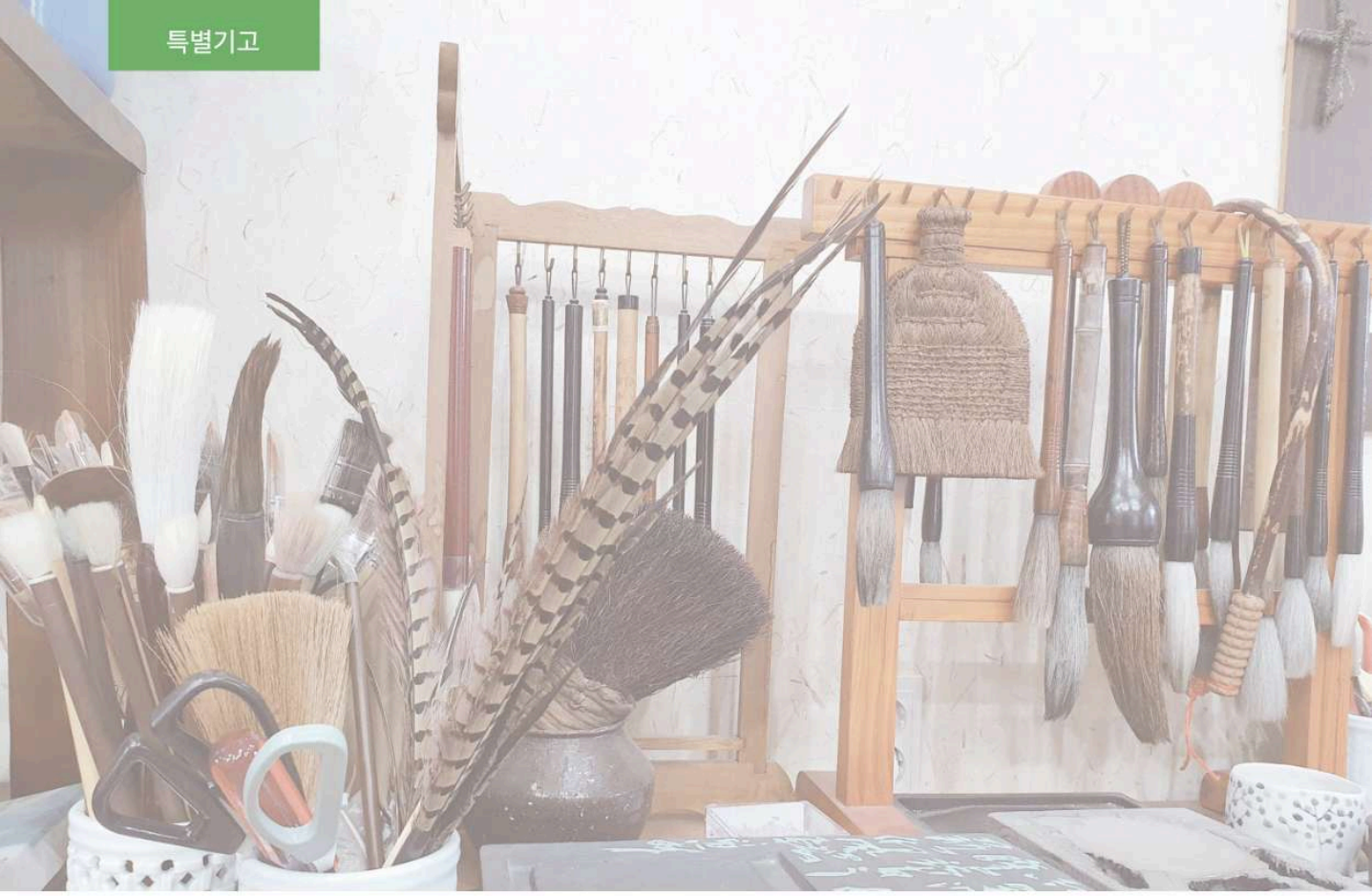
것의 현상학적 절합을 질문하는 회화설치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용적 시선의 대지예술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신자연주의'전은 1993년 한국에서 시작된 자생적 미학인 '신자연주의 예술 운동'을 소개한다. 신자연주의 예술운동은 모든 것이 소용돌이처럼 끊임없이 바뀌는 시대에 개인의 몸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을 삶의 출발점으로 보고, 그 삶을 꽃피우는 것 자체가 예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나인 강용면 권순철 서용선 정복수 작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강용면 작가의 '만인보-현기증' 또한 대규모 작품이다.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을 한 자리에 담아 보는 재미를 더한다.

빽빽이 들어찬 얼굴 속에 내가 아는 얼굴, 익숙한 얼굴, 낯선 얼굴을 찾아보면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 작가의 삶에서 의미깊게 다가왔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권순철 작가가는1990년대 프랑스에서 그린 미공개 작품 '홀로코스트'를 최초로 만나볼 수 있다. 한국전쟁을 비롯, 한국사의 아픔을 대면한 작가가 프랑스에 가서 제2차 세계대전이 낳은 또 다른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높이 3m가 넘는 대형 얼굴 작품 '무제'도 만날 수 있다. 서용선 작가의 대표적 시리즈인 단종 역사화 작품을 다수 만날 수 있다. '세조와 상원사', '동대문 송씨부인'은 물론 서용선 작가가 처음으로 역사화에 자화상을 그려 넣은 새로운 작품 '로돈도비치, 청령포 그리기', '청령포 그리기'도 전시된다. 아픈 역사를 좀 더 담담하고 과감하게 마주하는 작가의 모습을 볼 기회다. 정복수 작가의 '몸의 초상', '존재학', '기쁨의 원형' 시리즈를 비롯한 대형 패널 작업도 출품됐다. 가식을 거부하며 힘 있고 싱싱하게 살아 숨 쉬는 조형 언어를 감상할 수 있다. 패널 그림 속에 붙어 있는 오브제를 꼭 자세히 훑어보길 권한다.



문채원 Untitlet(Figure B)

신자연주의를 선언한 가나인 작가는 대형 회화 신작인 '버려진 땅'과 '삶', 그리고 작가의 자전적 삶을 담은 '이것은 산이 아니다'를 선보인다. 회화작품 주변으로는 오브제를 활용해 잔잔한 재미를 주는 소규모 설치작품들도 자리하고 있다. 가치의 균형을 묻는 저울 작품은 관객에게 토론의 장을 열어보길 제안한다.



특별기고

41 펜데믹 이후 미술계의 변화와 혁신은 필연(전북회화회 정기전시회 오픈행사 강연 주제)

44 예술로 환경과 공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ZERO DIRECTION(선미촌 미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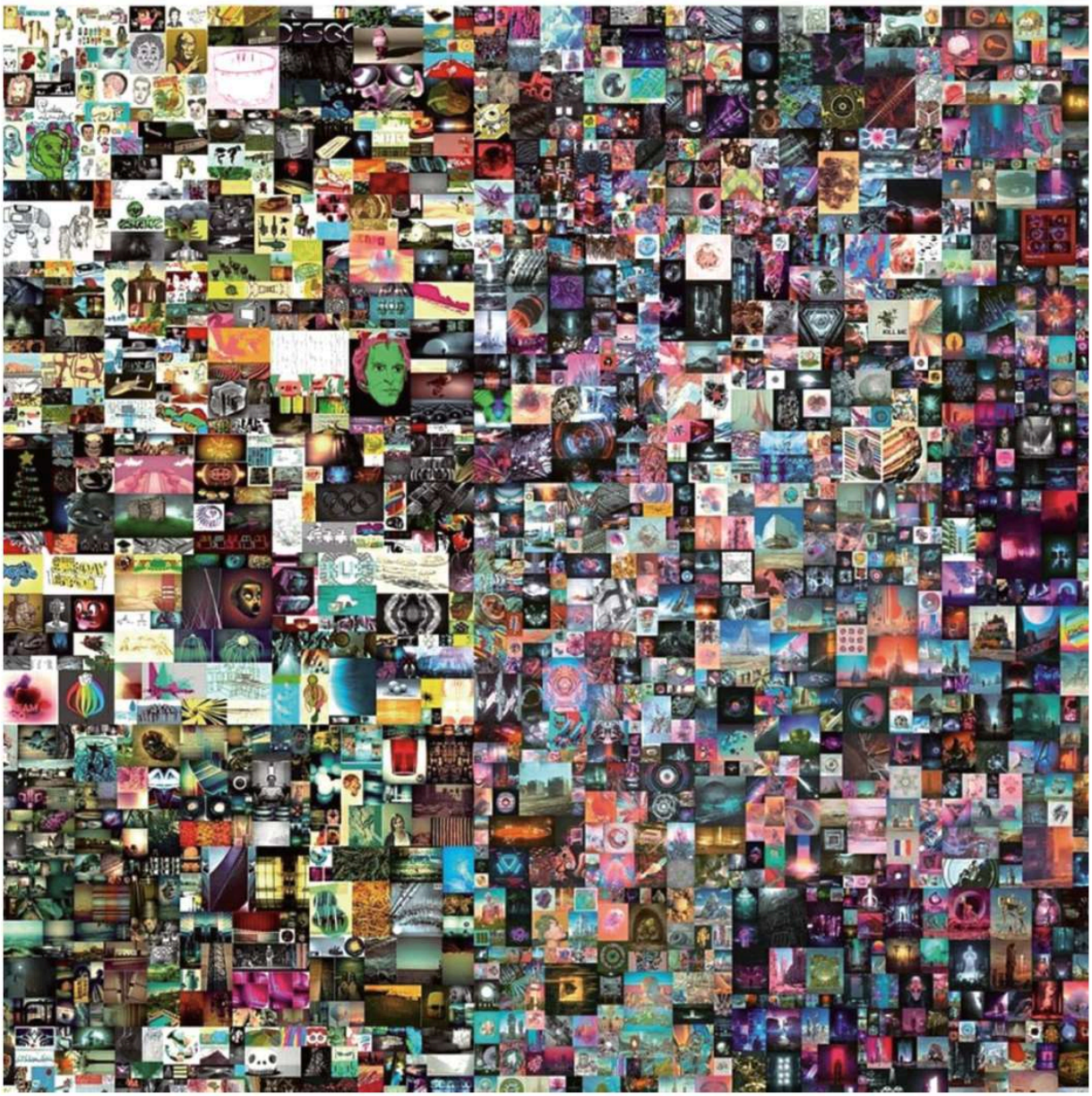
46 예술, 온라인으로 대중과 더 가까이

48 작업실 탐방 - 정미현 작가(전북회화회 작가 탐방)

50 코로나 시대, 젊은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전북회화회 청년작가 만남)

펜데믹 이후 미술계의 변화와 혁신은 필연

김 상 채(호서대학교 벤처경영학과/예술경영.미술기획)



[AP/뉴시스] 최근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이 달아오른 가운데 미국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작가 비플(본명 마이클 윈켈만)의 작품 '매일 첫 5000일'이 6980만 달러(약780억원)에 낙찰됐다. 사진은 크리스티가 제공한 해당 작품사진. 2021.04.

우리 속담에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는 이 속담을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처럼 작금의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혁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AI와 메타버스가 생활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으며 지구상의 누구라도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시대에 적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예술가 또한 예외가 아니라 더욱 더 혁신을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다. 혁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필자는 혁신은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다. 특히 예술계에서도 자신

이 만든 틀 안에 갇혀 있는데도 그것이 진정한 예술의 길인양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그 틀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보면서 미술계 또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미 모든 환경이 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며,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혁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 미술계의 환경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술계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2008년 이후부터 시작된 미술시장의 오랜 침체는 그나마 아트페어라는 미술품 거래 시장이 바닥까지 꺼진 미술시장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어진 내공은 2014년 KIAF의 역대 최다관람객이라는 기록을 이어가며 아트페어가 미술품거래의 중심유통시장으로 자리잡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올해 폭발적인 판매고를 올리면서 2021년 봄 부산아트페어에서 350억, 10월 키아프에서 약 650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판매 기록을 세우면서 미술작품 유통의 주요 시장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올해 다시 불붙기 시작한 미술시장의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겹치면서 올해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으며 앞으로 단기간은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위축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보복 소비(리벤지 쇼핑, Revenge Shopping)'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거기에 더해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시중에 푼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고 있고. 이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여유 자금이 부동산·주식이 아닌 미술시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운 비명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시적인 현상을 잘 관리해서 꾸준히 변화에 대처하고 혁신해야만 국내 컬렉터들이 해외 아트페어로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고, 국내 아트페어 역시 상업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갤러리와 작가의 품격을 높이고 차별화된 기획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망 중인 관객을 소비 관객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새로운 컬렉터층의 부상인데 바로 MZ세대들의 등장이다. MZ세대는 플렉스문화의 중심에 있는데 '과시'나 '자랑'을 의미하는 플렉스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자신의 사치와 소비를 가감 없이 주변 친구나 동료에게 자랑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자기 과시'라고 규정할 수 있는 플렉스 소비는 자기만족과 즐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 이들은 '고가의 명품'(40.8%), '세계여행(36.7%)', '음식(27.0%)', '자동차(24.6%)' 등 주로 사치성 품목에 돈을 쓰고 싶어하고 지출 비용도 500만 원 미만이 66.0%를 차지하지만 500만~100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응답자도 17.6%나 되는 등 기존 세대들과는 확연히 다른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들이 미술시장에 유입되면서 새로운 컬렉터층을 형성하고 있다.



비플(Beeple) 마이크 윈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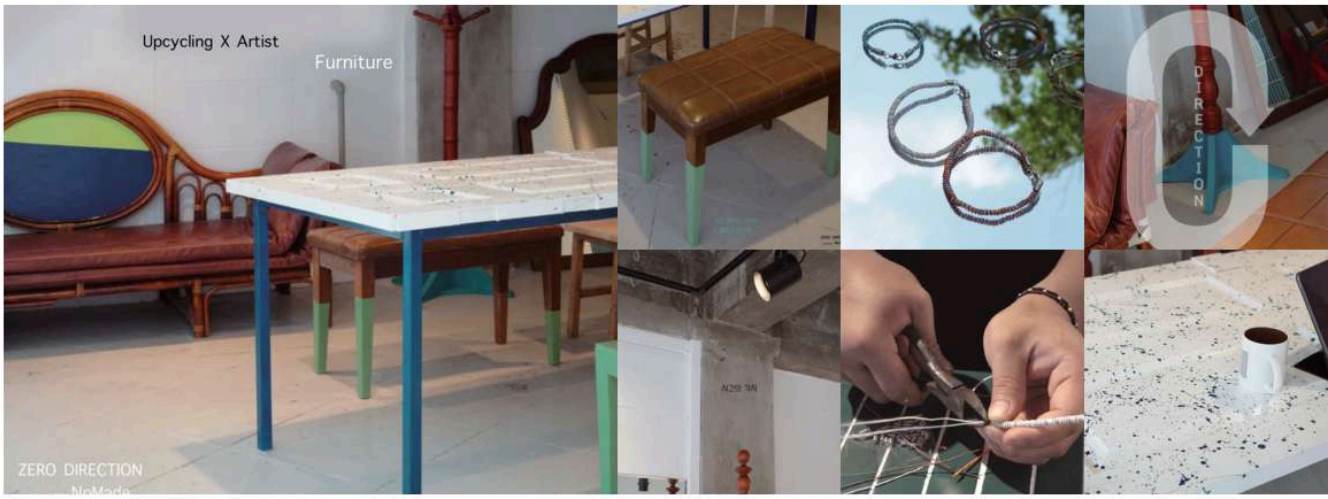
최근에 떠오르는 신진작가들 중 요즘 가장 핫한 김모 작가의 경우, 이 작가의 구매고객 80% 이상이 모두 MZ 세대들이다. 이미 해외에서도 MZ세대의 구매력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향후 이들이 미술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MZ세대들의 미술품 구매의 한 요인으로 얼마 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건희 컬렉션'의 영향도 작지 않은 것 같다. 젊은 직장인들이 미술품을 사 모아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외국으로 못 나간 데 대한 보복 소비(리

벤지 쇼핑)와 BTS나 인기연예인 등과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SNS를 통해 'K아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주었던 것 등도 현재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 같다. 내년부터 KIAF와 공동으로 열리게 될 영국의 프리즈(Frieze)가 한국에 진출하게 되면 국내 미술작품거래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지도나 자본 규모, 유통 구조, 판매망 측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지닌 프리즈가 국내 시장을 급속히 빨아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큰손들은 서구 미술작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대부분 국외 화랑이나 해외 아트페어에서 직접 구매해 왔지만 서울이 프리즈의 아시아 시장 거점이 된다면, 한국 화랑과 작품, 작가들이 세계 시장에 더욱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있다. 올해 갑자기 기형적으로 급성장한 미술시장이 내년 키아프와 프리즈의 공동 개최를 시작으로 그동안 오랜 침체와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었던 미술시장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가게 될 것은 확실한 것 같다.

현재 한국미술계의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NFT인데, 이 NFT에 대한 관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아트의 등장이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는 Non Fungible Token으로 암호화폐 토큰에 인식 값을 부여해 작품의 진위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NFT 작품은 창작자와 컬렉터를 포함한 계약, 작품 전송 등의 거래내역과 구매절차가 모두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해서 해킹이나 조작, 훼손, 진위여부 논란을 잠재우고 자유롭게 팔수 있는 투자자산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NFT는 영상·그림·음악 등은 복제 불가능한 원작으로 만들 수 있어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으며 작품으로 출시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NFT 작가로는 비플(Beeple)이 있으며 그의 작품 에브리데이(Everyday)가 780억원에 거래되었고, 엘론 머스크의 여자친구로 유명하지만 가수인 그라임스의 작품은 65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마리킴 작가의 NFT작품이 6억원에 낙찰되기도 했으며 미스터 미싱, Kun, 등의 NFT작가들의 작품이 NFT 마켓플렛폼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 디지털 아트가 제작된 것은 이미 수십년이 넘지만 다른 매체에 비해 판매되는 경우가 드물었고. 원본과 복사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가장 큰 이슈였으며 작가들은 저마다 파일에 복제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화하는 등 장치를 마련했었는데,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작품이 진품인지, 원본을 소장한 이가 누구인지 보증하는 NFT 작품이 발행되면서 디지털 작품의 고질적인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된 셈입니다. 이 같은 신기술의 등장으로 가상화폐 관련 기업이나 이를 통해 큰 수익을 본 투자자들, 그리고 메타버스와 게임, 아트상품 등에 관심이 큰 MZ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작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컬렉터와 미술시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 NFT 작가들과 NFT 작품은 미술시장의 페러다임을 바꾸어 놓고 커다란 혁신을 불러 일으키는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21에서 페북의 CEO 저커버그는 "미래에는 미디어, 예술, 스크린, TV가 물질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가상현실이 이에 상응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게 되는 세상이 곧 시작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메타버스의 일상화가 미팅과 콘퍼런스 방식도 바꿀 것으로 예상했으며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개발됨에 따라 곧 가상세계에서 회의가 매우 즐겁고 잘 진행되는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런 미래의 혁신은 미술계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제 시작한 MZ 세대들의 컬렉션은 아마도 조만간 미술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구매층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제 MZ세대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려면 이들의 취미와 기호,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들의 놀이터인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길이 바로 MZ세대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므로 미술인들도 메타버스에 대한 공부도 병행해야 변화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매력 있는 공급처는 떠난 소비자도 되돌아오게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변화와 혁신은 필수요소인데 이는 어느 분야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미술계에는 더욱 간절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K-Pop이 세계무대를 장악했듯이 한국미술이 세계미술계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미술인들의 변화와 혁신은 이제 필연이 되었다.

머지않은 날에 K-Art 역시 K-Pop과 나란히 세계무대를 누비는 행복한 콜라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로디렉션

예술로 환경과 공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ZERO DIRECTION

• **일시**: 2021. 10. 15 • **장소**: 제로디렉션 • **참여작가**: 박두리, 이정란, 최무용

Q 안녕하세요. 제로디렉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청년 아티스트들이 모여 재생을 주제로 업사이클링 가구를 제작하여 전시와 판매, 그리고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외 업사이클링 제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해 판매하며 인테리어 소품을 제작하는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Q NoMade와 제로디렉션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주세요.

A '제로디렉션'은 '노마드'라는 단체 안에 소속된 3명의 시각예술가들이 기획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시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고, 예술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실험하는 '노마드'의 업사이클링 프로젝트가 '제로디렉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NoMade 라는 단체를 결성하게 되셨나요?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A 조각가, 회화작가, 문화기획자, 가구조형디자이너, 웹툰작가, 사진작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 사업을 함께 하면서 단체를 결성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청년 작가들간의 네크워크 형성과 예술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만들어 졌지만, 지금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술로 풀어나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쓸모 있는 예술가가 되자'라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환경과 예술의 공존이라는 소개가 인상적인데요. 환경을 위해서 '업사이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매년 400만톤의 폐목이 버려지며, 이중 극히 일부인 순수 원목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소각되는데 이때 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소각비용과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버려진 원목가구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사용기간을 확장함으로써 혈세를 절감하며 환경오염을 늦춰 나아가고자 합니다.

Q 첫 작품이 업사이클 가구인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려요.

A 저희 업사이클 가구는 주변에 버려지는 원목가구를 새활용하여 청년 아티스트가 협업을 통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사람들과 재생에 대한 가치를 나누며 일상 속에서 예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추구하는 업사이클 가구입니다. 핸드메이드 가구다보니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렌탈 서비스를 통해 업사이클링 가구의 가격적 부담을 줄이며, 잦은 이사로 가구 구입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업사이클 대상으로 가구를 선정하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A 길가에 버려진 가구들을 볼 때면 '조금만 손을 보면 쓸 만 할텐데...' 라는 아쉬움이 함상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인해 버려진 폐목의 양이 과부화 된 상태에서 폐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새로 생산된 가구보다 이미 사용하고 버려진 것을 새활용 해 가구를 제작하여 더욱 오래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Q 폐가구가 업사이클 되는 과정이 궁금해요.

A 길가에 무단 폐기된 원목 가구를 수집하거나 또는 주민 분들에게 기증받은 가구를 가지고 본래 가진 매력을 살리되 새로운 모습으로 디자인하여 재구성합니다. 절단, 분해, 조립을 통해 제작한 뒤 날카로운 곳이 없도록 샌딩 작업을 한 후 페인팅을 하고, 바니쉬를 칠해 마무리합니다.

Q 사실 업사이클 패션 제품은 소비자 관심도가 높지만, 업사이클 가구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사이클 가구만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업사이클 가구는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예술가의 시선으로 낡은 가구 안에서 미를 발견하여 끄집어 내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이 가구 안에서 공존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시간의 가치가 업사이클 가구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옛 원목가구 같은 경우 현재 생산되고 있는 심플한 디자인의 가구들과는 매우 달라 동시대인들에게는 새롭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는 형태의 가구들이 많습니다. 이를 살려 여기에 예술적 감각을 더해 가구 작품을 완성합니다.

Q 활동하고 계신 '전주 선미촌 리빙랩'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A 전라북도 전주 서노송동에 위치한 과거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매매가 성행하던 공간이었지만 현재 점진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과거 운영이 되었지만 현재는 빈 업소 공간을 철거하고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제품 개발과 업사이클 교육 프로그램을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업사이클과 과거의 것을 기반으로 새롭게 재생시킨다는 점에서 공간과 단체 활동의 결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업사이클 가구에 이어서 페케이블을 활용한 팔찌를 제작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페케이블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A 선미촌에 위치한 각 건물들에는 성매매가 이루어 졌던 수많은 방들이 남아 있습니다. 비워진 방들을 탐색하다 각 방에 버려진 많은 인터넷 선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복을 벗겨 안에 전선들을 활용하여 다른 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현재 팔찌와 키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녹슬지 않고 헤지지 않으며 가죽보다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어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Q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새로운 예술 작품이 있을까요?

A 앞으로도 다양한 가구들을 수집하고 재생하여 각양각색의 가구들을 계속 제작할 계획이며, 다른 아이템도 연구하고 개발하여 홈퍼니싱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예술 단체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Q 제로디렉션에서 지향하는 환경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A 제로웨이스트, 친환경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미 생산되어 사용되고, 쓰임을 다해 버려진 것들을 재료로 예술가가 가진 역량을 활용해 사용기간과 용도를 확장하여 생명력을 불어 넣어 오래 쓰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제로디렉션과 NoMade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요? 사회에 어떤 단체로 남고 싶은가요?

A 예술가들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만 하는 몽상가가 아닌, 예술을 다양한 매개를 통해 표현하고 실현함으로써 사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나가는 단체로 남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예술로 환경과 공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제로디렉션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술로 풀어내가는 노마드만의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박두리(전북회화회 회원)



예술, 온라인으로 대중과 더 가까이

김도일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무대 공연이 영상예술이 되고 있다. 그런데 시공간의 무한한 확장성과 엄청난 볼거리를 제공하는 영상과,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몸짓을 촬영한 연극 영상을 비교해 '경쟁'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 또한 온라인 전시공간에서 마우스 하나로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등 실감 기술이 활용된 국내외 작품을 생동감 있게 관람하는 것과, 전시공간에서 직접 작품을 관람하는 것의 차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긴다.

독일의 문학평론가 발터 베냐민은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사진 기술과 영상 기술의 발달에 따른 예술의 본질적 변화에 대해 기술하며, 대중매체로서 영화와 전통적 매체로서 연극의 근본적 차이를 복제 가능 여부로 구분했다. 공연예술의 '지금, 이곳(Here and Now)'에서만 존재하는 일회적·일시적인 경험이라는 본질적 희소성의 가치는 무대 상연이 아닌 온라인 상영은 다른 양식일 수밖에 없는 논리의 근거가 된다. 사실 공연의 영상화는 2006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더 멧 라이브 인 HD(The Met: Live in HD)' 시리즈 론칭과 2009년 영국 국립극장의 '엔티 라이브(NT Live: National Theatre Live)'가 해외의 대표적 사례이며, 국내는 영화처럼 공연을 무대 곳곳에서 촬영한 예술의전당 영상화 사업 '삭 온 스크린(SAC on Screen: Seoul Arts Center on Screen)'이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비대면 온라인 영상화가 이뤄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영상화 사업을 새로운 예술양식 개념으로 주목받게 했다. 기존 영상화 사업들을 가칭 '공연 영상' '공연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양식으로 재발견한 것이다.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예술의 발견

코로나19는 미술계에도 전시와 유통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전시장을 온라인 VR로 제작해 전시장 전경과 고화질 작품 이미지를 가상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VR 전시관'으로 전시하고 있다. 미술시장은 '온라인 뷰잉룸'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대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온라인 거래 또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냐민은 사진 기술이 회화의 예술적 가치와 대중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사진이 미술의 제의적 가치를 밀어내면서 전시적 가치 전환으로 미술의 대중화에 역할을 했다면, 코로나19는 디지털 문명과 함께 사진 발명 이후 더 넓은 대중화의 길을 마련해 미술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예술인들의 창작 준비금과 예술인 특별융자 등 생계 지원금에 더해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코로나 일상에서 공연·전시가 계속될 수 있는 방안이다. 21세기 들어 바이러스의 창궐은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2020년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감염병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감염병 창궐 주기가 점차 짧아지면서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문화예술 영역 또한 예외가 아니며 디지털 기반 구축은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예술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를 접하면서 새로운 예술의 발견과 함께 예술의 온라인화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 정책은 예술의 현장성이나 본질적 희소성이 살아 있는 대면 예술의 지속적 지원과 비대면 예술의 기반 구축으로 상호보완 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영상예술의 발전을 꾀하면서 예술시장의 성장과 예술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언젠가 사라진다. 무엇보다 예술과 관객이 소통하고 전 국민이 건강과 행복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좋겠다.



작업실 탐방
정미현 작가

Q 정미현 선생님의 작가소개와 작품 세계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졸업하고 작업한 지 30년이 지났네요. 직장에 다니다 보니 전업 작가로 개연성을 가지고 동력을 계속 돌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힘은 이철량 교수님 제자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승님께서 작업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제자 입장으로 한 치의 의심없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당연시 느끼면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롭게 그림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이 각성하게 되고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 감사함을 항상 가지고 있고 이번에 전업 작가로 전향하게 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2의 작업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번씩 던져주시는 말씀이 흐린 날씨 속에서 해가 뜨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작업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Q 천 작업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A 대학 졸업하고부터 계속 천에 작업을 하였습니다. 천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그림을 거칠게 그리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천이 힘을 받아주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천의 종류에 따라 물성과 성질이 달라 천이 물을 머금는 시간과 두께에 따라서 먹의 농도를 조절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종이보다 천에 작업을 한 개인의 역사가 있고, 아직 천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모두 이끌어 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좀 더 천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Q 작업의 소재는 어디서 찾으시나요?

A 30대 초반까지 사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작업은 사람을 소재로 하는 그림이 많았고 17년 전에 소양으로 이사 오면서 사람이 아닌 자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비로서 사람으로부터 벗어나 2005년부터 자연에 대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사오지 않고 계속해서 살았다면 그림이 자기 반영인 것처럼 이러한 작업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림에 창살이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와 학교, 주변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Q 이사를 오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A 아이를 키우고 새벽에 작업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작업과 생활 공간이 같을 수 밖에 없었고 그림 그릴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집을 지어서 이사 왔습니다. 세상이 모두 잠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깨어져 있을 때가 공간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체력이 될 때 새벽 1시, 2시를 기다리다 밤새 작업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작업실과 집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 작업을 하는 데 흐름을 깰 때도 있지만 작업이 생활화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Q 작업을 지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작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말 할 수 있는 점은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강박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다고 생각했을 때가 처음 그림을 그렸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미술학원이라는 곳에서 아그리파 조각상을 그리고 또 그렸던 기억인데 그림 한 장을 다 그린 밤 11시에 처음으로 무아지경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그림을 그리다 새벽 시간이 된 적이 있었는 데 시간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7-8년 전에 교직생활 중 암투병을 하면서 한동안 작업에 몰두하지 못했습니다. 미약하지만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퇴직하고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작업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온전히 숨을 불어넣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공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사라지고 공간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업이라는 실체가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작업을 하면서 각성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림이 나를 가르친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로 살아간다는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Q 요즘 하시는 먹 작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A 먹 속에 모든 색이 다 들어있는 것 같고 그 어떤 색도 끼우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먹이 나를 가르치고 닦아내는 수양의 대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먹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철량 교수님 : 작가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고행. 힘들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과 강요가 고통을 주는 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작가가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절대적인 가치의 세계로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고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부처의 말대로 어떤 인생이든 삶은 고행이다. 자기가 경험한 것 주변에서 오는 것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작품의 세계는 또 다른 것 이라고 생각한다. 언어의 한계 때문에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철학 또한 마찬가지이다. 작품의 세계는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생 하지 않으면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박두리(전북회화회 회원)





코로나 시대, 젊은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 **일시**: 2021. 10. 9 • **장소**: ZOOM • **참여작가**: 박성수, 이지희, 박두리, 임효성

Q 작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두리 : 안녕하세요. 회화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있는 박두리 입니다.

박성수 : 전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박성수 작가입니다. 한국화를 전공하였지만 그 동안 여러 재료에 호기심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수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 안녕하세요. 수묵과 콜라주로 변형되는 기억을 그리고 있는 이지희입니다.

임희성 : 안녕하세요. 회화 작업하는 임희성 입니다.

Q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어떻게 삶이 변했나요?

박두리 :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확연히 줄어든 것, 코로나로 인한 문화예술사업들이 다변화 되었다는 점 등이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코로나 이전과 다를게 없지만 작업을 발표하는 형식이나 방법, 작가들과 교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방법과 방식들에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성수 :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많은 자리는 피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손 세정제로 씻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개인 위생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매년 걸리던 감기가 코로나 이후로는 감기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과 작업실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작업을 하는 시간 이외에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일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 할 때도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열리는 대형 전시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기에 전시 또한 영상으로 종종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 팬데믹 사회 속에 사람들 간의 소통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화하면서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희성 :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이전엔 일상적 삶이 큰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거리 두기로 인해 행동 제약이 많아졌습니다. 불편함이 많았지만 자연스럽게 습관화되니 이제는 이러한 삶도 익숙해졌어요. 온라인 속에서 만나는 것도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 속에서 또 다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해 작업이나 발표에 변화가 있었나요?

박두리 : 유니온아트페어 X 비브스튜디오스 AR(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전시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실의 이미지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AR갤러리에서 고화질의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더 많은 대중에게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작가로써는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아직은 현실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는 관람객들과의 조우에 익숙하다보니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박성수 : 코로나가 작업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주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각 예술을 전공으로 하였기에 여러 시각 매체의 변화들이 회화의 표현 방법과도 연관관계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에 대해 가끔 생각을 해보고는



ZOOM으로 담론하는 모습 시계방향으로 (박성수, 이지희, 임효성, 박두리)

합니다. 근대 시기에 사진술이 미술에 영향을 끼쳤던 것을 생각하면서요. 코로나 이후에 모바일 또는 컴퓨터의 시각 매체가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지만 분명 시청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상공간 속에서의 회의나 게임 또는 인터넷 속의 가상세계를 접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시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에 지금 나의 작업에 어떤 변화를 주었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 분명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지희 :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전시장에는 관람객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전시발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개인 소통하는 가상 공간보다 그 이상의 전시공간으로 다양하고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임희성 : 사회적 분위기가 침울하니 나의 작품을 보고 좋은 감정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작업 방향에 대한 변화는 많지 않았고 작품 발표 형식에 대한 변화는 많았습니다. 전시 오프닝과 뒤풀이가 생략되었고, 전시는 축소, 연기, 심하게는 취소된 것도 있었습니다. SNS 홍보에 비중이 높아졌으며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Q 비대면으로 예술로 관객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두리 :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전시를 하게 된다면 전시에 대한 혹은 작가에 대한 담론 형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한계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원화와 전시공간이 만들어 내는 힘은 온라인 상에서의 이미지로는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고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 : 코로나 이전 예술에 대하여 비평적 시각을 가지고 전시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소비하던 관객들에게는 불만이 될 수 있지만 코로나시기에 비대면으로 작품을 감상하거나 소통을 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만 아니라면 작품이나 공연들을 직접 관람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술에 아직 관심은 없지만 여러 인터넷 플랫폼에 친숙한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춰 흥미를 유발하여 코로나 이후 잠재적 관객이 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 : 저는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것이 현재 팬데믹 상황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원화로써 가지고 있는 작품의 깊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먼저

접하고 예약제 대면방법을 함께 진행하여 작품을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 더욱 작품의 진정성을 전달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희성 : 비대면에서 문화예술 소통은 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실제로 해보니 단점인 부분도 있지만, 더 넓고, 폭넓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았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의 개척과 확장도 되어 많은 관객들은 만날 수 있는 것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비대면으로 문화예술을 즐기는 문화가 더욱 발전되고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전시 탐방, 작업실 탐방, 명화 감상 재미있게 즐겨봅니다. 오히려 위기에서 기회를 찾은 것 같습니다.

Q 가상현실에서의 전시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박두리 : 시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무한의 작품을 소개 할 수 있고 시간의 제약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 위의 질문에 대한 답과 같습니다.

이지희 : 가상 현실에서의 전시는 온라인으로 작품 발표를 하여 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임희성 : 저의 견해는 긍정입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작품을 갤러리에서만 보여준다는 편견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막는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의 전시가 발전되어 퀄리티가 좋아진다면 또 다른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현실로는 전시하기 어려운 힘든 해외 유명 갤러리, 미술관에 제 작품을 전시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웃음)

Q 팬데믹 상황에서 예술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박두리 : 세계적 재앙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예술가로서 감성적 위로 뿐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짙어지는 고립감 속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 탈출구 바로 앞에 예술가가 서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박성수 : 팬데믹으로 인하여 내 주위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또한 일상에서 심리적으로 위축 될 때도 많았구요. 예술인들의 좋은 작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부터도 좋은 작업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지희 : 앞으로 이러한 위기는 끊임없이 다가 올 것이다. 이 위기 속에서 예술인들은 대중의 우울감이나 정식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될 수 있다. 예술로써 정신을 극복하는 상황들은 점점 더 발전될 것이며 예술인들이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에 도움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희성 : 팬데믹 상황은 문화예술의 갈증을 더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럴 수 록 예술인의 역할은 분명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팬데믹 상황에 미술작품 매출 규모는 커졌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창작활동을 더욱 왕성히 하여 사람들이 일상을 벗어나 감정을 더욱 풍요롭게 하도록 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두리(전북회화회 회원)

전북회화회 회원명단

김준근 김지연 박두리 박방영 박성수
박종갑 박지예 방정엽 송태정 송화정
안순금 오송규 유예빈 윤대라 이명자
이승훈 이우정 이지희 이진숙 이철량
이호억 임진성 임 효 임희성 정미현
조병완 진희란 최창봉

전북회화

2021년 통권 제28호 전북회화회

발행·편집인 송태정
편집위원 송태정, 정미현, 박두리,
임희성, 유예빈, 이지희
전북회화 2021년 통권 28호
발행일 2021. 11. 30


전북
문화